

미얀마 국내분쟁 피해여성
정서지원을 위한
현지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젝트

꺾꺾꺾살라
치치킹킹!

주관



후원



남도일보



미얀마 국내분쟁 피해여성 정서지원을 위한 현지활동가 역량강화 프로젝트
물루랄라 치치킹킹

발행일 2018년 8월 2일

펴낸곳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발행인 황정아

기 획 황정아·한주연·김경자·이희영·윤희주·장은진·문기전·장영은

지은이 최형금·범은경·김고은 (경이로운 여성의 몸)

서영옥·손경화 (평화교육)

채숙희·최미랑·차경희 (페미니즘 활동과 여성주의 상담)

편 집 윤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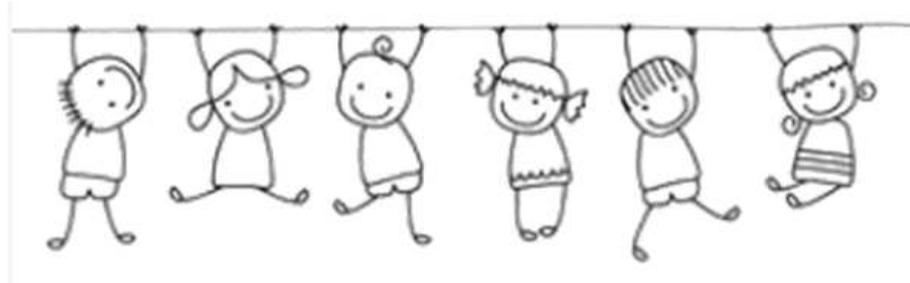
디자인 이희영

프로그램 주관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 Gender Development Institute

대표 후원기관 남도일보 · (사)광주국제협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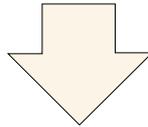
<i>프로그램 소개</i>	1
하나. 경이로운 여성의 몸	5
둘. 마음을 여는 공감과 듣기	25
셋.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47
넷. 한국의 페미니즘 활동, 이렇게 했어요	55
 <i>부록</i>	
<i>페미니즘 상담을 위한 활동지</i>	69
<i>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의 활동 기록</i>	90
<i>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i>	92



📎 프로그램 소개

- ◆ 일시 : 2018. 8. 20.~23.
- ◆ 장소 : 미얀마 양곤 성공회교회
(Church of the Province of Myanmar, No. 140 Pyidoungsu Yeik Thar Street, Dagon township, Yangon, Myanmar)

시간	8월 20일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일
09:00-10:00	오리엔테이션	평화교육 I	페미니즘 활동이란?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사
10:00-11:00	아이스 브레이킹			
11:00-12:00				
12:00-13:30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3:30-15:20	여성의 몸 이해하기 I	평화교육 I	자존감훈련 -나 들여다보기-	그룹 활동 - 활동계획 세우기-
15:20-15:40	휴식시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15:40-17:30	여성의 몸 이해하기 II	평화교육II	공동체훈련 -조직세우기-	그룹 발표 및 평가 (교육 끝내는 의식)
17:3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20:00	선택활동	선택활동	선택활동	우정을 나누는 밤



😊 자기소개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 ① 2인 1조 만들기
- ② 친구에게 나를 소개한다.
(이름, 참여하게 된 동기,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 등)
- ③ 내 친구를 소개한다.

※ 진행자 참고사항 : 시간을 고려하여 몇 팀만 소개한다.

😊 스티커 게임 <인사하고 안아주기>

- ① 각 1명당 5장의 스티커를 나눠 갖는다.
- ② 2명씩 마주보고 가위바위보를 한다.
- ③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얼굴에 스티커를 붙인다.
- ④ 다른 사람과 짝을 이뤄 가위바위보를 한다.
(총5명과 만나게 된다).

⇒ 권리장전

※ 진행자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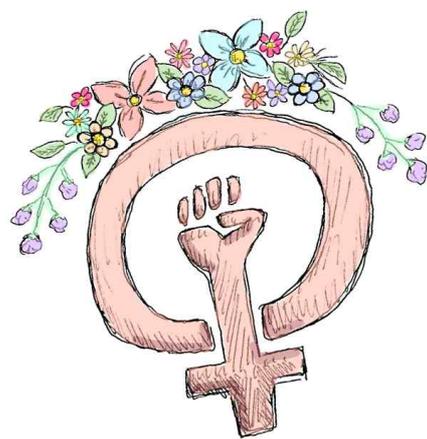
- ① 전체 참여자가 함께 읽는다.
- ② 권리장전 중 마음에 드는 권리를 체크하고 상대방과 이야기 나눈다.
- ③ 권리는 나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권리장전

나는 나 자신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우선순위로 둘 권리가 있다.
나는 안전한 권리가 있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거나 심하게 다룬다면, 그를 저지하거나 화를 낼 권리가 있다.
나는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자신의 돈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나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나는 성장하고 변화할 권리가 있다.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나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나는 타인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한 일상에 대하여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Goodman & Fallon, 1995)

경이로운 여성의 몸



잉태(conception)의 신비 (marvel)

경이로운 여성의 몸
Wonderful(marvelous)
Female bo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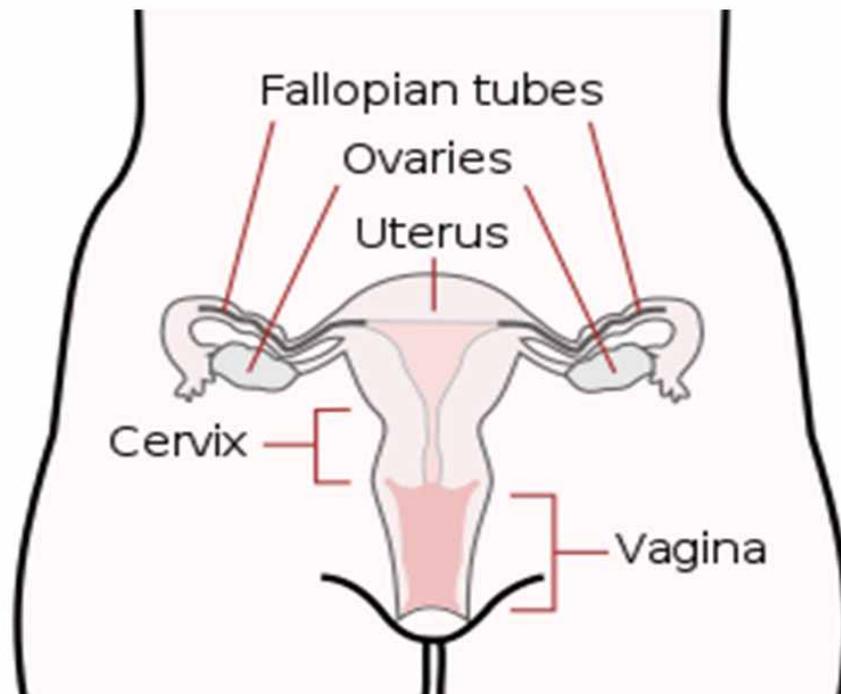
아기는 대개 임신 40주에 태어나는데,
갓태어난 아기의
평균체중(average weight)은 3.4Kg 이고,
평균키(average height)는 50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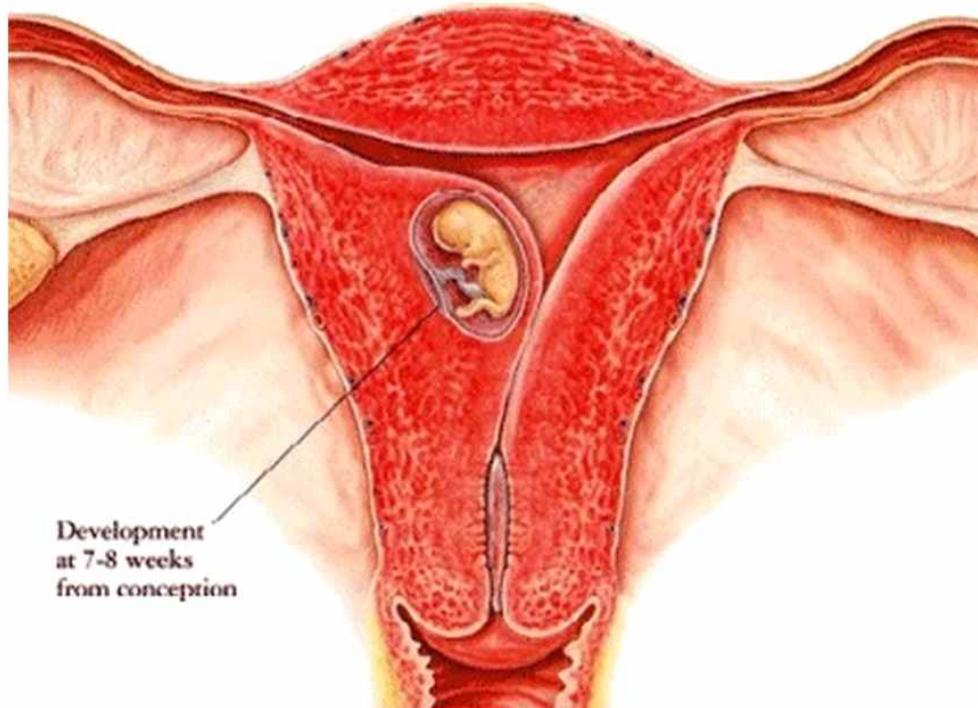
수정(fertilization)이란

수정이란

여성(woman, female)과 남성(man, male)의 결합(union)에 의해 새로운 생명(life, organism) (수정란 fertilized egg)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수정란이 변하여 아기로 자라나므로 수정란은 장차 아기가 될 씨앗(seed)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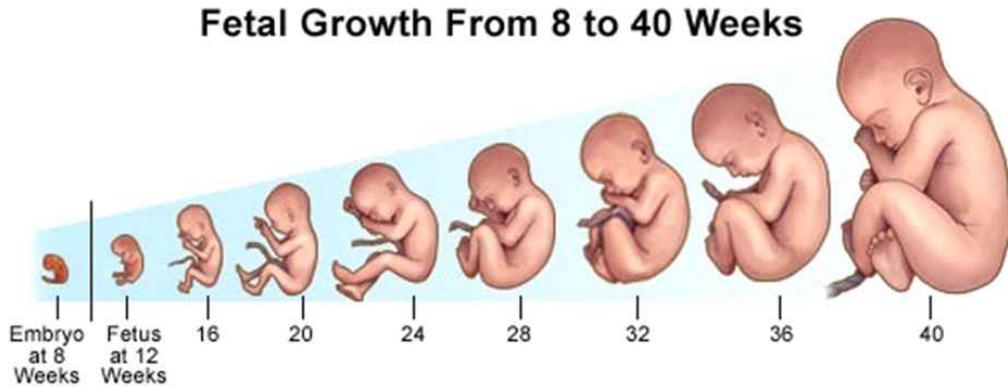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아(fetus)는
엄마로부터 영양(nutrition)을 공급(supply)받으며 자란다.

엄마가 입으로 음식물(food)을 먹어서 들어온 영양분(nutrient)은
엄마의 혈액(blood)속으로 녹아들어
몸 곳곳으로 전달되어 쓰이는데,

임신하면 자궁(uterus)에 혈관(vessel)이 많아져서,
자궁(uterus)으로 가는 혈액(blood)도 많아지게 된다.

엄마의 자궁속에서 엄마와 아기를 연결(connection)해주는
태반(placenta)과 탯줄(umbilical cord)은 주로 혈관(vessel)으로 구
성되어 있고(consisted of),
이 태반(placenta)과 탯줄(umbilical cord)이
엄마의 혈액(blood)으로부터 영양분(nutrient)을 받아
아기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외음부 위생(hygiene)

대변 속에는 대장균(E.coli라는 bacteria)이 살고 있는데, 이 대장균이 질 속으로 들어오면 염증을 일으키게 된다.

배변후 닦을 때 앞쪽으로 닦으면, 대변이 질입구에 묻으면서 대장균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배변 후에는 항상 뒤로 닦도록 하고, 만일 질입구에 대변이 묻으면 바로 깨끗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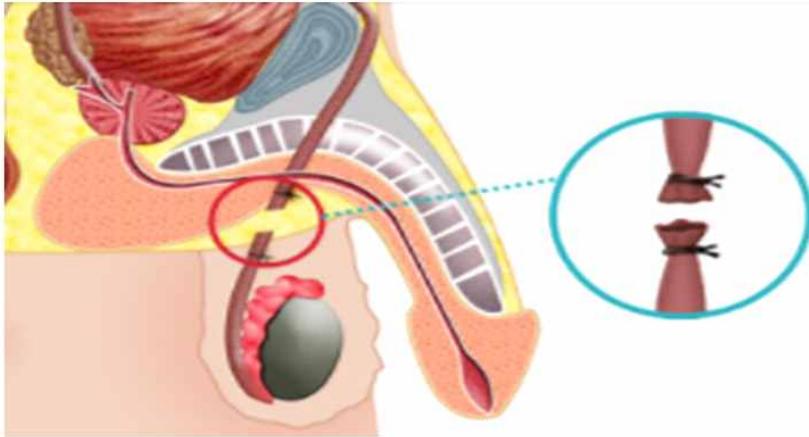
피임(contraception)

원하지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남성의 피임방법

- 1.정관 묶는 수술(vasectomy)
고환(testis)에서 생성된 정자(sperm)가 부고환(epididymis)을 거쳐 정관(vas deferens, seminal canal, spermatic duct)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데, 이 정관을 묶어줌으로써 정자가 정관을 통과해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정관수술



남성의 피임방법

2. 콘돔(condom)
콘돔은 고무(rubber)재질로 되어 있고, 성관계(sexual intercourse, coitus)시 남성의 음경(penis)위에 씌움으로써, 사정(ejaculation)할 때 나온 정자(sperm)가 여성의 질(vagina)과 자궁(uterus)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두어두는 역할을 한다.

콘돔



남성의 피임방법

3. 질외 사정 (extravaginal ejaculation)

성관계(sexual intercourse, coitus)시 사정(ejaculation)하기 직전에 음경(penis)을 여성의 질(vagina)에서 빼내어 사정(ejaculation)함으로써, 질(vagina) 내부에 정자(sperm)가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다.

여성의 피임방법

1. 피임약 (contraceptive pill)

피임약은 배란(ovulation)자체를 억제 (inhibit)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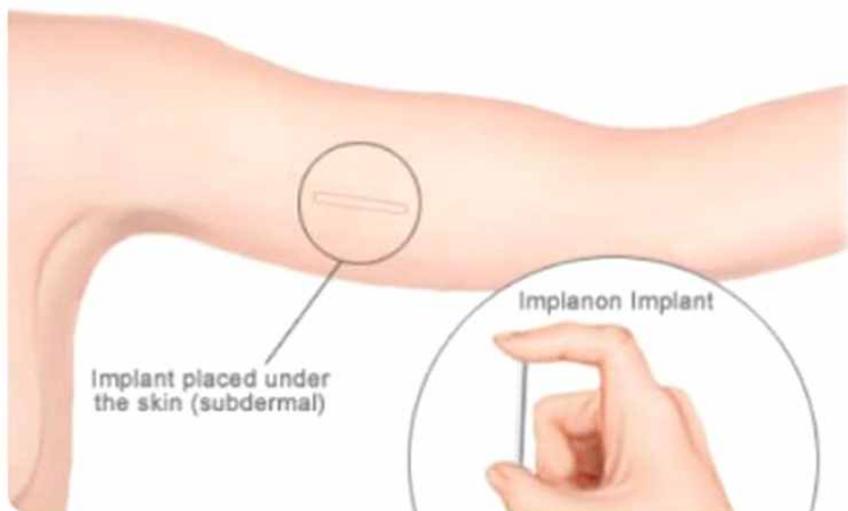
먹는 피임약



임플라논의 피임원리

- 1.난소에 작용하여 배란(ovulation)을 억제(inhibit)한다.
- 2.자궁경부 점액(cervical mucus)을 끈끈하게 하여 정자가 자궁 내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한다.
- 3.자궁내막이 자라는 것을 억제하여 수정란이 착상하기 힘든 환경을 만든다.

임플라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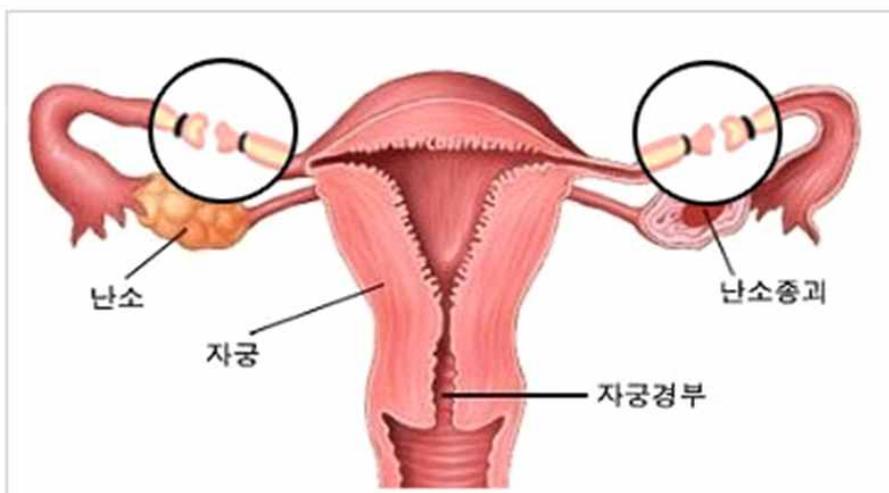


여성의 피임방법

2. 나팔관 결찰 수술

배란 후 난자가 통과하게 되는
나팔관을 묶음으로써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게 한다.

나팔관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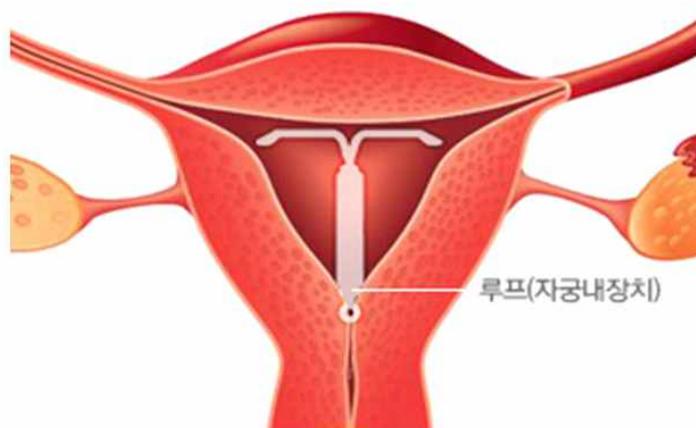


여성의 피임방법

3. 자궁내 장치(루프 loop)

자궁 속에 삽입함으로써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한다.

자궁내장치. loop



루프의 종류

1. 구리 루프
2. 미레나

여성의 피임방법

3. 자궁내 장치(루프 loop)

자궁 속에 삽입함으로써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하는 것을 방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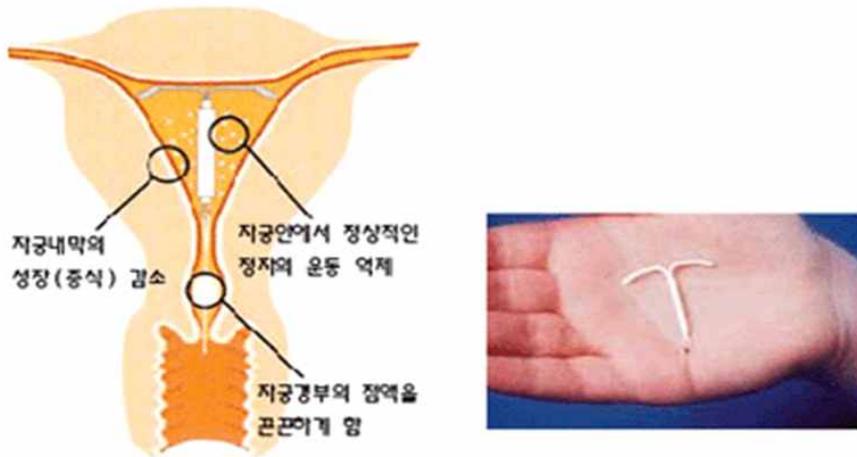
루프의 종류



미레나의 피임원리

1. 황체호르몬(progesterone hormone)에 의해 자궁경부(cervical) 점액(mucus)을 끈끈하게 하여 정자(sperm)가 자궁 내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며,
2. 자궁과 나팔관 내에서 정자가 정상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방해
3. 자궁내막이 자라는 것을 억제(inhibit)하여 수정란이 착상을 하기 힘든 환경을 만든다.

미레나



여성의 피임방법

4. 사후피임약(morning-after pill)

성관계(sexual intercourse, coitus) 후
72시간 이내에 복용하여
수정란의 착상을 막는다

사후피임약



월경 위생

1. 청결

- 1)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길인 질은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
- 2) 질은 강한 산성: 나쁜 세균이 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줌

2. 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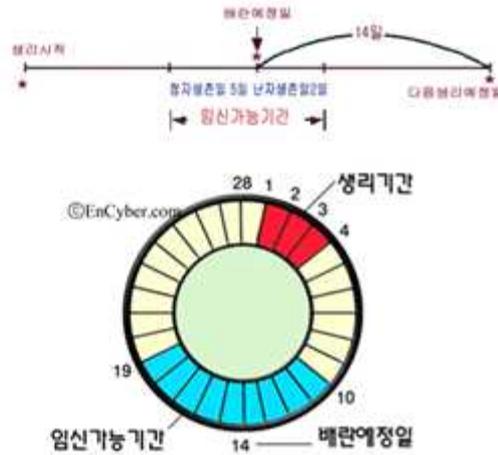
- 1) 비누나 여성용 청결제: 너무 자주 이용해서 씻게 되면 질을 보호하는 좋은 세균들까지 씻겨 버려서 질을 보호하는 힘이 떨어짐
- 2) 질은 너무 오랫동안 씻지 않으면 분비물로 인해 냄새가 나기도 하고 염증이 생길 수 있음 → 매일 한 번 정도 씻는 것이 적당
- 3) 질을 씻을 때는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문지르지 않기

3. 월경 시 주의사항

- 1) 월경 냄새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면월경대 사용
- 2) 월경을 할 때에는 속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함

가임기 인지법

- 가임기: 임신확률이 높은 기간
(생리 예정일 14일 전)
- 자궁경관 점액법
: 질점액의 색이 변하거나
지속적으로 분비
- 기초체온 추적법
: 매일 체온을 측정
: 경미한 체온 상승



마음을 여는 공감과 듣기



⇒ 프로그램 진행표

내용	준비물
열기	
약속 확인 - 서클의 주춧돌 읽기	
충전놀이	
휴식	
활동1 : 공감연습1(침묵 듣기, 반영하기) 활동 후 경험 나누기	
활동2 : 욕구카드 활동, 공감카드 활동	모둠 진행자 필요 - 5~6개 모둠
휴식	
활동 후 경험 나누기	
활동3 : 공감연습2(느낌, 욕구로 듣기) 활동 경험 나누기	
휴식	
활동4 : 정직하고 열린 질문 연습	
활동5 : 공감연습3(그룹 - 정직하고 열린 질문)	
휴식	
활동 경험 나누기	
묻고 답하기	
끝내기	

1. 공감의 힘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불안과 공포, 우울과 무기력감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다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교육은 그 중에서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서 그들의 '내면의 힘'을 회복 하는데 도움이 되는 '공감'에 대해 함께 경험하고 나누려고 한다.

우리는 살면서 크거나 작거나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된다. 때로는 그 상황으로 고통스러움을 경험한다. 모든 사람은 외부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일로 영향을 받는 정도는 각자의 마음과 정신 건강 상태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 어떤 상황이든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헤쳐 나갈 수 있는 힘, 그 상황을 극복하고 각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그것은 결국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을 때 가능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것은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런 내면의 힘을 찾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공감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듣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전달해서 이해받고 싶기 때문이다. 상대방부터 이해 받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자신의 고통에 빠져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살필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아직 자신이 이해 받지 못했다는 표현이며, 진심으로 이해 받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자신의 고통과 마음을 충분히 이해 받고 났을 때 비로소 그 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과연 어떤 상황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으며 무엇을 해 볼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도움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도움이 된다. 고통의 당사자가 자신의 필요(Need)를 스스로 돌보고자 마음을 내었을 때 어떤 지원이든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의 시작은 공감이다. 공감의 시작과 끝, 공감의 전부는 듣기이다.

2. 공감과 구별하기

1) 조언, 충고, 교육하기

- 내 생각에는 우선 이걸 먼저 해야 해.
- 도대체 그 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니?
- 이건 너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거야.

2) 한술 더 뜨기

-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보다 더 힘든 사람도 있어.

3) 위로하기

- 네 잘못이 아니야. 넌 최선을 다 했어.

4) 화제 전환 하기(다른 이야기 꺼내기)

- 그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5) 감정을 중단시키기 / 전환하기

- 기운 내. 풀 죽어 있지 마.
- 기운 내서 이 상황을 다르게 한 번 보자.

6) 동감하기

- 나도 너랑 똑같은 심정이야.

7) 동정하기

- 너 참 안됐다.

8) 자료 수집하기/조사하기

- 언제부터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니?

9) 평가하기

- 너는 너무 나약해. 그래서야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겠니?

10) 빈정대기

- 내 말 안 듣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다.

11) 분석·진단·설명하기

- 요즘 그런 식으로 자주 생각하는 걸 보니 우울증 초기인 것 같은데.
- 네가 원래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 그래.

3. 공감하는 방법

- 1) 온전히 듣기
- 2) 의미 이해하기 : 말하는 사람의 느낌과 원하는 것 이해하기
- 3) 정직하고 열린 질문하기

공감은 크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첫 번째 온전히 듣기는 상대가 충분히 말하고 마칠 때까지 침묵하며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두 번째 의미 이해하기는 상대가 한 말이 그 사람에게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 이해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정직하고 열린 질문하기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 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도록 질문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없는 질문이어야 한다. 궁금한 것을 묻거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질문의 형태를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그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다.

1) 온전히 듣기 - 공감으로 경청하기

공감이란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머리와 가슴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듣고 있다. 우리는 다른 인간의 영혼과 깊이 있게 소통하는 데 초점이 있다. 공감을 할 때에는 이야기를 들으며 일어나는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상대가 말하는 것, 상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귀를 기울인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귀로 들을 뿐 아니라 동시에 눈과 가슴으로 듣는다. 이 때 우리는 감정과 의미, 행동까지도 경청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상대의 기분을 더 나아지게 하려 하거나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다. 혹은 지금 이 순간 그 사람이 존재하는 방식을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충고하거나 안심시키려 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느낌을 설명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자신의 의견, 선입견, 배경, 자신의 경향성, 우리가 갖고 있는 충동을 투사한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가 실제로 하는 이야기를 온전히 들을 수가 없다. 공감은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2) 말 속에 들어 있는 의미 이해하기

상대가 말하고 있는 동안 그 사람의 느낌과 그 말 속에 들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며 듣고, 들은 것을 다시 말한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면서 공감하는 방법이다.

< 느낌(Feeling)과 욕구(Need)로 공감하기 >

(1) **느낌 (Feeling)** :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을 떠올리며, 상대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말한다.

- 당신은 _____(느낌) 하나요?
예시) 당신은 슬프나요?

(2) **욕구(Need)** : 상대의 '느낌'과 연관된 상대의 욕구(Need)를 표현 한다.

- 왜냐하면 당신은 _____ (욕구)를 원하기 때문인가요?
예시) 왜냐하면 당신은 이해 받기를 원하기 때문인가요?

(3) **부탁 (request) 찾기** : 상대의 욕구(Need)를 돌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다.

- ①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돌보기 위해 당신이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②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돌보기 위해 누군가에게 부탁하거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1) 느낌(Feeling) - 무엇을 느끼는가?

- 느낌이란 외부나 내부자극에 대한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 느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는 경보기 같은 존재로,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그렇지 못한지의 상태를 알려주는 메신저역할을 한다.
- 자신의 느낌을 명확하게 의식하고 서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좀 더 쉽게 다른 사람과 원만하고 부드러운 정서적 유대관계를 이루고 유지할 수 있다.
- 느낌을 표현할 때는 모호하고 막연한 단어보다는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방이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느낌을 이해한다는 것은 공감의 시작이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 느낌 (Feeling List)

<p>욕구가 충족되었을 때</p>	<p>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p>
<p>고마운, 감동스러운, 가슴 뭉클한, 감격스런, 가슴 벅찬, 경이로운, 황홀한, 충만한 즐거운, 재미있는, 끌리는, 짜릿한, 신나는, 흥미로운, 흥분된, 기대되는, 들뜬, 유쾌한, 통쾌한, 궁금한, 기쁜, 반가운, 행복한, 감미로운, 사랑하는, 따뜻한, 훈훈한, 포근한, 푸근한, 정겨운, 다정한, 친근한, 뿌듯한, 산뜻한, 상쾌한, 개운한, 후련한, 홀가분한, 만족스러운, 흡족한, 든든한, 흐뭇한 담담한, 친밀한, 긴장이 풀리는, 안심이 되는, 마음이 놓이는, 차분한, 침착한, 고요한, 평온한, 평화로운, 여유로운, 진정되는, 가벼운, 누그러지는, 기력이 넘치는, 기운이 나는, 용기 나는, 당당한, 생기가 도는, 활기찬, 생생한, 원기가 왕성한, 자신감 있는, 힘이 솟는, 희망찬, 자랑스러운.</p>	<p>걱정되는, 불안한, 염려되는, 근심스러운, 신경 쓰이는, 꺼림직한, 찝찝한, 뒤숭숭한, 무서운, 겁나는, 두려운, 놀란, 섬뜩한, 오싹한, 안절부절 못하는, 진땀나는, 조바심 나는, 긴장한, 떨리는, 조마조마한, 초조한, 속 타는, 괴로운, 짜증나는, 불쾌한, 불편한, 언짢은, 거북한, 곤혹스런, 난감한, 멧쩍은, 쑥스러운, 난처한, 창피한, 민망한, 무한한, 당황스러운, 부끄러운, 답답한, 갑갑한, 서먹한, 어색한, 당혹스러운, 어리둥절한, 슬픈, 마음이 아픈, 서글픈, 먹먹한, 그리운, 목이 메는, 서러운, 울적한, 우울한, 쓸쓸한, 외로운, 고독한, 공허한, 허전한, 허탈한, 무기력한, 침울한, 막막한, 망설여지는, 서운한, 아쉬운, 낙담한, 섭섭한, 후회스러운 피곤한, 고단한, 노곤한, 귀찮은, 성가신, 힘든, 지친, 질린, 지겨운, 지루한, 심심한, 따분한, 무료한, 억울한, 실망스러운, 절망스러운, 좌절한, 맥 빠진, 혼란스러운, 고민스러운, 화나는, 속상한, 분한, 격분한, 열 받는 참담한, 처참한, 비참한, 안타까운,</p>

(2) 욕구(Need) - 무엇을 원하는가?

- 욕구란 삶을 지속하고 풍요롭게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다.
- 욕구는 문화적 관습이나 조건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것이다. 모든 인간은 같은 욕구를 공유한다.
- 욕구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려는 시도이다.
- 욕구는 우리 내면의 긍정적인 힘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주는 에너지로 나타난다.

보편적 욕구 (Universal Needs)

<p>자율성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선택할 자유 자신의 꿈, 목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을 선택할 자유</p> <p>신체적/생존 공기, 음식, 물, 주거, 휴식, 수면, 안전, 건강 신체적 접촉(스킨십), 성적 표현, 따뜻함, 부드러움, 편안함, 돌봄을 받음, 보호받음, 애착 형성, 자유로운 움직임(이동), 운동</p> <p>사회적/정서적/상호의존 주는 것, 봉사, 친밀한 관계, 유대, 소통, 연결, 상호성(상호 의존), 공유 배려, 존중, 공감, 연민, 이해, 수용, 지지, 협력, 도움, 감사, 인정, 승인, 사랑, 애정, 관심, 호감, 우정, 가까움, 기여, 나눔, 소속감, 공동체, 안도, 위안, 신뢰, 확신, 예측가능성, 정서적 안전, 자기 보호, 자기 돌봄 일관성, 안정성</p>	<p>놀이/재미 즐거움, 재미, 유머, 흥</p> <p>삶의 의미 기여, 능력, 도전, 명료함(투명성), 발견, 보람, 의미, 인생예찬(축하, 애도), 기념, 깨달음, 자극, 주관을 가짐(자신만의 견해나 사상), 독립, 자 립, 자율성, 혼자만의 시간 중요하게 여겨짐, 참여, 회복, 효능(효율), 희망, 열정</p> <p>진실성 정직, 진실, 성실성, 온전함, 현존, 진정성, 존재감, 일치, 개성, 자기존중, 비전, 꿈</p> <p>아름다움/평화 아름다움, 평탄함, 휴가분함, 여유, 편안함 평등, 조화, 질서, 평화, 영적 교감, 영성, 영감</p> <p>자기구현 꿈, 목표, 성취, 배움, 생산, 성장, 창조성, 치유, 숙달, 전문성, 목표, 가르침, 자각, 자기표현, 자신감, 자기 신뢰</p>
---	--

(3) 부탁(Request) -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기

- 부탁이란 자신의 욕구를 의식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 자신의 느낌과 욕구를 표현하지 않고 부탁만 하면 상대가 강요로 들을 위험이 있다.
- 진정한 부탁은 상대방이 우리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그 거절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욕구를 공감해주고 모든 사람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볼 의사가 있는 것이다.
- 만약 두려움이나 죄책감, 의무감에서 또는 보상을 얻기 위해 상대의 부탁을 계속 들어 준다면 그 두 사람은 서로 질적인 연결이나 신뢰를 쌓기가 어려워지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현재 실행 가능한 것으로 찾는다.

자기공감일지

상 황(관찰) :

생 각 :

느 낌 :

욕 구 :

부 탁 :

3) 정직하고 열린 질문(honest, open question)

정직하고 열린 질문하기는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할 때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도록 듣는 사람이 질문해주는 것이다. 여기서 질문은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없는 질문이어야 한다. 내 호기심으로 궁금한 것을 묻거나, 내가 조연하고 싶은 것을 질문의 형태를 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핵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다.

< 정직하고 열린 질문 안내 >

- ▶ 정직하고 열린 질문이란, “난 이것에 대한 올바른 답을 알고 있어.”, 또는 “네가 이것에 대한 바른 답을 주길 바래” 하는 생각으로 질문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치료를 만날 생각을 해 본 적은 없나요?”와 같은 질문은 정직하고 열린 질문이 될 수 없다. 그보다는 “방금 이야기해 준 경험으로부터 무엇을 알게 됐나요?”와 같은 것이 정직하고 열린 질문일 수 있다.
- ▶ 당신의 질문으로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앞질러 가지 않는다. “당신이 슬펐다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는 정직하고 열린 질문이다. “당신이 슬펐다고 했는데, 화도 났지요?”는 정직하고 열린 질문이 아니다.
- ▶ 가능한 짧고 질문의 중심이 담긴 질문을 한다. 여러 가지 근거나 배경 설명 등을 덧붙임으로써 자신의 의견이나 충고를 주입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한다.
- ▶ 문제 자체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에게 다가가는 질문을 한다. 이는 겉으로 드러난 사실을 넘어서 내면의 진실에 대한 질문들을 뜻한다.
- ▶ 묻는 사람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보다는 말하는 사람 자신의 관심을 탐구하도록 돕는 질문을 한다.
- ▶ 어떤 질문이 은유적 표현이라고 해도 말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직감이 있다면 자신을 신뢰한다.(일단 그것이 정직하고 열린 질문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다. “이 문제가 당신에게는 어떤 색깔을 띠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런 색을 띠는 것일까요?”
- ▶ 특정 질문에 대해 확신이 없다면, 잠시 그 질문을 지켜보며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 ▶ 이전 질문과 다음 질문 사이에 잠시 침묵을 허락한다. 너무 빨리 질문들이 튀어나오는 것은 공격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이 깊게 비추어볼 여지를 잘라버린다.
- ▶ ‘네-아니오’ 또는 ‘옳은가-그른가’를 답으로 요구하는 질문은 피한다. 또한, 단순하고 솔직한 질문이 가장 좋은 질문임을 기억한다.

정직하고 열린 질문을 하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 될 것이다. 때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규정하려는', 또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고치려는' 오래된 습관에 빠져 다른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있다. 그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뛰어난 문제 해결사임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다. 오로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지혜'의 목소리를 잘 듣도록 돕는 것임을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환기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4. 집단 공감 - 서클

집단 공감은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 모두가 동글게 둘러앉아 이야기 나누는 방식으로 '서클'이라고 한다. 동글게 둘러 앉아 이야기 나누는 '서클'은 우리가 일상에서 대화하는 방식보다 더 깊이 있고 진솔한 말하기와 듣기를 유도한다. 자리배치를 동글게 하면 사람들을 공동체로 연결되었다는 느낌과 안심하고 말할 수 있겠다는 신뢰감을 얻게 된다. 서클은 '근본적으로 평등한 관계의 모임'이 된다.

뚜렷한 목적이나 의도를 갖고 원 대형으로 배치된 의자에 둘러앉게 하면, 사람들은 각자 깊이 생각하여 말하고, 이해하고, 행동한다. 특히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나눔으로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임을 확인하면서 서로 연결되고 이해 받으며 치유하고 회복하는 힘이 있다.

<서클 진행 방법>

- 1) 모임 공간 만들기
- 2) 연결하기 : 참여자 상태 확인, 서로 마음 열기
- 3) 말하기 도구 사용하기
- 4) 약속 정하기(안전한 공간을 형성하는 서클의 주춧돌)
- 5) 공감의 시간
- 6) 서클 닫기

1) 모임 공간 만들기

- 자리를 둥그렇게 배치한다.
- 참여자들이 따뜻하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민다.
- 원 가운데 모임의 상징물이나, 꽃 등 다양한 것을 활용해 중심을 만든다. 이것은 서클이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원 안에 두게 하며 서로가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돕는다.

2) 연결하기

- 연결하기는 서클을 시작하면서 각자 돌아가면서 말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돌보고, 서서히 마음을 열고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연결하기는 보통 1~2가지 질문으로 진행된다.
예시) “지금 느낌이 어떤가요?”, “당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신가요?”
- 말하기 도구를 사용해 돌아가면서 이야기 한다.
- 나누기를 원치 않으면 자신의 순서가 왔을 때 잠시 침묵하고 말하기 도구를 넘긴다.

3) 말하기 도구 사용하기

- 말하기 도구는 서클에서 각자가 이야기 하고 듣는 것을 도와준다.
- 말하기 도구는 손에 쥘 수 있는 적당한 것을 사용한다.
- 한 번에 한 사람씩 이야기 한다.
- 자신에게 말하기 도구가 왔을 때 이야기 할 수 있다.
- 말하기 도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

4) 약속 확인하기

- 약속은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안전망 역할을 한다. 약속은 서클이 안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하며 구성원 모두에게 상호작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다.
- 안전하게 모임이 진행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안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쳐 약속을 정한다. 또는 ‘안전한 공간을 형성하는 서클의 주춧돌’을 약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 약속 중 ‘비밀보장’ 사항은 서로가 안전하게 참여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5) 공감의 시간

- 참여자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살피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간이다. 공감의 시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 먼저 ‘공감’을 원하는 참여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 공감을 원하는 참여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경청한다.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두고 들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직하고 열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 또는 느낌카드와 욕구카드를 사용해 말하는 사람을 다른 참여자들이 공감해준다.
- 또는 참여자들이 두 사람씩 짝지어 한 사람이 20~30분 정도 말하면 다른 한 사람은 침묵으로 들어주고, 느낌과 욕구로 공감해주고, 필요하다면 정직하고 열린 질문을 한다. 한 사람이 끝나면 역할을 바꿔서 20~30분 동안 다시 말하고 듣는다.

6) 서클 닫기

- 서클 내에서 주의 깊게 듣는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서클 닫기 시간은 모임을 끝내기 전에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이 된다. 또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서클에서 무엇을 새롭게 경험하고 발견하게 되었는지, 어떤 느낌인지 등에 관해 돌아가면서 말한다.
-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 비밀유지가 중요하며 그것을 확인하며 마친다.

5. 활동가 서클

누군가를 공감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여유가 필요하다. 여유란 내 몸과 마음 모두 괜찮은 상태일 때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자신의 돌봄이 충분히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공감할 수 있으며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활동가들에게는 그들 자신부터 공감 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 모임의 목적을 서로 확인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모임의 기간을 정한다.
- 모임은 가능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 진행은 모두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다.

안전한 공간을 형성하는 서클의 주춧돌

1. 환대를 주고받기

사람들은 환대의 공간에서 가장 잘 열리고 배운다. 서클에서 우리는 환대를 주고받음으로 서로를 지지한다.

2. 온전히 현존하기

말할 때나 들을 때 깨어있고, 자신의 확신, 기쁨, 성공뿐 아니라 의심, 두려움, 좌절에도 깨어 현존한다.

3. 다른 사람의 진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

서클에서 자신의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말을 해석하거나, 옳고 그름으로 논쟁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들 안에 진실을 가려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믿고 “나 말하기(I statement)” 방식으로 자신의 진심을 표현한다.

4. 서로 충고하거나 고치려하지 않고, 구하려 하지 않기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의 해결책을 찾아주려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으며, 깊은 경청과 정직하고 열린 질문으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바가 명료해지도록 돕는다.

5. 대화의 흐름이 거칠어질 때 새로운 시각으로 전환하기

‘온화한 시선(soft eyes)’으로 바라보고 나누려는 마음을 낸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보다 깊이 듣는다. 감정적 반응과 판단으로부터 경이로움과 따뜻한 질문으로 전환한다.

6. 내면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침묵을 자주 가지면서 자신의 반응을 살피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7. 침묵을 신뢰하고 침묵으로부터 배우기

침묵은 소란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물이며, 그 자체로 또 다른 앎의 방식이다. 침묵을 서클의 일원으로 대하라. 누군가 말한 후에 즉시 다른 말로 그 공간을 채우지 않고 음미할 시간을 가진다.

8. 비밀을 지키기

안전함이 지켜지도록 서로 나눈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기지 않는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경청함으로 생기는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되 그들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

<활동1>

공감연습1 - 침묵하며 온전히 듣기, 들은 대로 되돌려주기

1.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앉는다.
2. 두 사람 중 말하고 듣는 역할을 정한다.
3. 정해진 시간(2~3분) 동안 한 사람이 이야기 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최대한 귀기울여 듣는다. 혹시 중간에 떠오르는 질문이나 생각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상대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온전히 듣는다.
4. 정해진 시간이 되면 말하고 듣기를 멈추고 잠시 침묵한다.
5. 시간이 되면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멈추고, 들었던 사람은 상대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들은 것을 되돌려준다. 이 때 돌려준다는 것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내 생각과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은 대로 다시 말해준다는 의미이다.
“저는 _____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맞나요?”
6. 말하고 듣는 역할을 바꿔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발견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활동2>

공감연습2 - 느낌, 욕구로 듣기

1.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앉는다.
 2. 두 사람 중 말하고 듣는 역할을 정한다.
 3. 정해진 시간(2~3분) 동안 한 사람이 이야기 하면 다른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최대한 귀기울여 듣는다. 혹시 중간에 떠오르는 질문이나 생각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상대가 이야기를 마칠 때까지 온전히 듣는다.
 4. 시간이 되면 말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멈추고, 들었던 사람은 상대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들은 것을 돌려준다. 이때는 상대방이 이야기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확인한다. “저는 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게 맞나요?”, “당신은 (느낌) 하나요? 왜냐하면 당신은 (욕구) 를 원하기 때문인가요?”
 5. 말하고 듣는 역할을 바꿔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한다.
- ▶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발견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활동3>

공감연습3 - 정직하고 열린 질문하기

1. 5~6명씩 그룹으로 둥그렇게 앉는다.
2. 그룹별로 말하기 역할 할 사람을 한 명 정한다.(스스로 원하는 사람으로)
3. 말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 등에 대해 5~10분정도 이야기 한다. 말하는 동안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다.
4. 말하기가 끝나면 그룹 구성원들은 말했던 사람의 이야기 중 중요한 부분을 다시 말해준 다거나, 그 일로 인한 느낌과 욕구를 표현해준다거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정직하고 열린 질문을 한다.
5. 말한 사람은 그것을 듣고 자신 안에 살피지는 것들을 표현한다. 말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침묵할 수도 있다.
6.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게, 서클의 주춧돌을 기억하며 참여한다.
7. 정해진 시간(40분 정도)이 되면 마친다.

- ▶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듣기와 말하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나 발견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활동4>

욕구카드 활동

1. 5~6명씩 그룹으로 앉는다.
 2. 나눠준 욕구카드를 그룹 구성원 모두가 볼 수 있게 펼쳐 놓는다.
 3. 펼쳐진 카드에서 각자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적혀 있는 카드 3장을 고른다.
 4. 한 명이 자신이 고른 3장의 카드를 소개하고 그 카드를 고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한다. 한 명이 이야기를 마치면 다른 구성원이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모두 돌아가면서 이야기 한다.
 5. 그 중 가장 우선 돌보고 싶은 욕구가 무엇인지 고르고 그 욕구를 돌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려 본다. 방법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찾는다.
- ▶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자신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발견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활동5>

공감카드 활동

1. 5~6명씩 그룹으로 앉는다.
 2. 말하기 역할 할 사람을 한 명 정한다.(스스로 원하는 사람으로)
 3. 말하는 사람은 현재 자신의 고민이나 어려움, 갈등이 있는 상황 등에 대해 2~3분정도 간단하게 이야기 한다. 말하는 동안 그룹의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듣는다.
 4. 말하기가 끝나면 그룹의 구성원들은 느낌카드를 나눠 갖은 후, 각자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말한 사람의 느낌으로 짐작되는 카드를 돌아가면서 내놓는다.
 5.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느낌이 충분히 나오면 "Stop"을 외치고 그 중 자신이 크게 느낀 느낌을 3~4장 고른다. 고른 카드에 대해 설명한다. 3~4장 고른 카드는 말하는 사람 앞에 둔다.
 6. 구성원들은 욕구카드를 나눠 갖은 후,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카드 중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 느낌이 드는 이유로 짐작되는 욕구카드를 돌아가면서 한 번에 한 장씩 내놓는다.
 7.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욕구가 충분히 나오면 "Stop"을 외치고 그 중 그 일과 관련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욕구카드를 3~4장 고른다. 고른 카드에 대해 설명한다.
- ▶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발견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활동6>

정직하고 열린 질문 연습하기

1. <정직하고 열린 질문 안내>를 함께 읽는다.
2. 진행자가 자신의 이슈를 말한다.
3. 참여자들은 이슈를 듣고 정직하고 열린 질문을 떠올려보고 질문한다.
4. 진행자는 그 질문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표현한다.

- ▶ 이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경험이 있었나요?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발견한 것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1. 여성학의 개념

여성학은 1960년대 사회운동의 한 부분(axis)으로 발생하였으며 여성연구 또는 여성에 관한 강좌(lecture)를 말한다.

여성학은 여성이 사회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역할하고 있는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남성들 중심의 학문 세계에서 남자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모습과 역할이 아니라 여성들 스스로 여성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성학이 다루는 영역은 남성과 여성이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역할, 즉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답게 와 같은 젠더의 문제, 사회학(sociology)의 문제, 가족의 문제, 성(sex)과 몸에 관련된 문제, 취업과 경제활동(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ies), 여성과 복지에 관련된 문제 등을 포함한다.

여성학 영역은 임신이나 출산의 경험,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등 여성의 입장에서 사회를 해석한다. 이렇게 해석된 여성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 했던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나 모순이 보이게 된다. 여성학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여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나타나고 적용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성별관계Gender relationship라고 한다.

2. 여성학과 페미니즘, 여성운동

한국의 여성학은 1960년대 '새로운' 여성운동에서 본격화되었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학은 정부 밖에서 시작되었고 1980년대에 정부의 제도가 되어가는 과정을 밟았다. 여성학은 처음에 여성의 의식화Consciousness를 위해 여성단체나 공동체(노동자교육학교, 성인교육학교 등)에서 여성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여성학이 정치적 행동(political action)과 학문 영역을 합쳐서 더 넓은 여성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라면, 페미니즘은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론이다. 또, 남성, 여성에 따라 생기는 차별과 나쁜 관습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로 발전하고자 하는 실천 의지(Willingness to practice)를 담은 이념(ideology)이다.

한국은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에 '여성학강좌'가 개설되었고, 1980년대 여성단체들이 결성

되어 여성운동과 페미니즘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성과를 이루기 시작하였다.

한국여성연구회Korean Women's Studies Association의 『여성』 과 『여성과 사회』 , 또 하나의 문화에서 발행한 『또 하나의 문화』 등은 감춰져 있던 한국의 여성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여성주의 상담의 원리와 목표

1) 상담의 목표 : 역량강화

내담자Client의 역량강화Empowerment를 위해 내담자의 개인적인 고통과 편안함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영양등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합하고 이것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distinguish, discern)하도록 돕는다.

Worell의 역량강화를 평가하는 개인진보척도

Worell's Individual progress measures for empowerment evaluation

1. 긍정적인 자기 평가Self-evaluation와 자기 존중감 self-esteem
2. 편안함과 고통의 알맞은 균형
3. 성역할Sex role과 문화적 정체성Cultural identity 알아가기
4.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힘과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5. 스스로 성장하고 돌보는 능력
6. 효과적인 문제 해결력
7. 자신의 주장을 잘 할 수 있는 기술의 사용
8. 사회적·경제적·지역사회적 자원에 대한 효과적인 접근
9. 젠더와 다문화적multicultural인 유연성flexible을 가진 행동
10. 사회운동과 제도적institution 변화에의 참여

2) 페미니즘 힘 기르기의 원리

- 개인적·사회적 정체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 모든 개인은 젠더, 민족, 사회계층, 성적 취향Sexual orientation, 나이, 신체적 능력과 특성 등 몇 개의 사회적 위치에 속하게

- 된다. 이 위치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만드는데 중요하고 영향 있는 문화의 관계망을 통해 사회적 위치로 속하게 된다. 특권계층(남자, 백인, 이성애Heterosexual, 신체적 능력 등), 억압suppression받는 자리(여자, 흑인이나 황인, 레즈비언, 신체적 장애obstacle)
-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Personal is a political thing : 페미니즘 힘 기르기가 이루어야 할 최종 목표는 성차별Sex discrimination과 힘이 없고 약한 집단에 대한 억압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 제도의 변화이다.
 -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평등하다.
 - 여성의 시각은 귀중하다 : 여성들은 보통 공감sympathy, 양육, 협력, 직관intuition, 상호의존,Interdependence 관계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

4. 페미니즘 활동가의 자세

1) 페미니즘 가치관values

여성주의 활동가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라는 명제를 보는 기본 시각과 성 평등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의식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항상 자신에 대한 성찰Reflection, 사회구조 분석에 대해 예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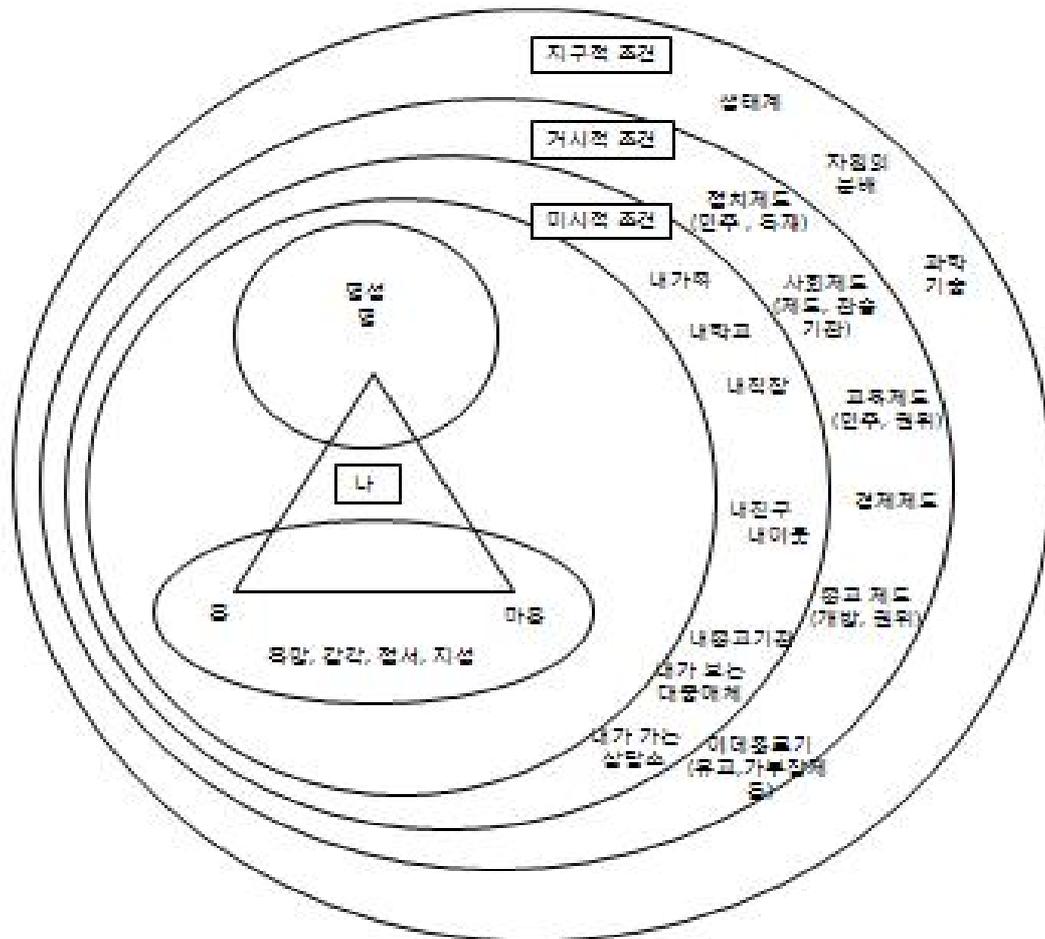
2) 개인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3) 내담자 스스로 참여하려는 의지와 문제 해결능력을 높게 평가한다.

페미니즘 상담의 4가지 원리

- 1)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이다.
- 2) 상담자counselar와 내담자Client는 평등하다.
- 3) 상담의 최종목표는 내담자의 역량강화이다.
- 4) 여성의 눈으로 다시 바라본다.

붙임 1. 조건화의 모델



김민예숙 '여성주의상담워크숍'자르침에서 인용

5. 가부장제와 여성폭력

가부장제 [patriarch] ; ‘아버지’라는 의미의 ‘patri’와 ‘지배’라는 뜻의 ‘arch’가 합쳐져 생긴 단어이다. 즉 가족 내 아버지가 권력을 갖는 지배구조로 가족뿐 아니라 사회영역 전반에서 여성의 성·출산·노동 등을 통제하는 남성이 지배하는 구조를 말한다. 여성을 동등한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대상화Targeting하고 상품화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며, 남성은 가정에서 주요의사를 결정하고 사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여성은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남성들을 돕고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 생물학적인 차이(출산) → 성역할고정관념(여성성, 남성성) → 성차별 → 여성폭력

가부장제의 역사

구석기시대에는 여성들이 주로 숲에서 열매를 얻는 일을 했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되면서 공동체 생활은 어머니가 중심이 되는 모계 사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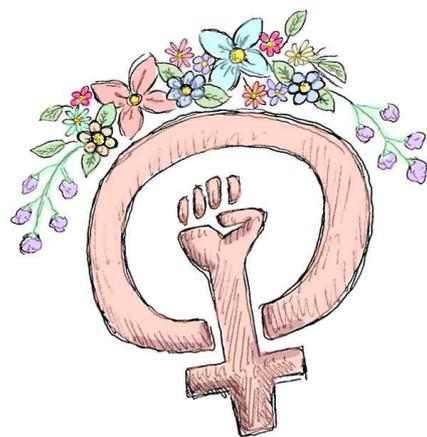
신석기시대에는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산과 번식의 신비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생각되었다. 청동기시대에 농산물이 충분히 생산되면서 이것을 차지하기 위한 권력이 발생하였으며 이때 남성이 점점 힘을 갖기 시작했다. 특히 국가라는 공적기구의 성립과 함께 공과 사의 영역이 구분되자, 경제적·군사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여성들은 점차 공적 공간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1) **성폭력** : 성을 이유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음란한 눈짓, 말, 포옹, 신체접촉, 입맞춤, 섹스 등의 강제적인 성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은 인간의 성적자기결정권Sexual self-determination을 방해하고 침입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강간rape의 법적 정의는 ‘폭력의 상황에서 저항할 수 없는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저항resistance을 했는가? 저항하지 않았는가? 성관계에 동의agree 했는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성기에 들어갔는가? 들어가지 않았는가? 같은 저항이나 동의, 성기 삽입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성폭력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다.

- 2) **가정폭력** : 가정폭력은 가족들 간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성적 폭력을 의미한다. 한국 국민의 약 50%가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오랫동안 가정 폭력을 당한 부인이 남편을 살해할 경우 피해자의 폭력에 따른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 3) **성매매** : 성매매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여성의 몸을 매매하고 상품으로 만들어 착취 exploitation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매매는 어느 사회든지 가난한 여성이 피해의 대상이 된다. 한 개인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게 있다. 그래서 성매매는 피해 여성을 비난하지 않고 가난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페미니즘 활동,
이렇게 했어요



1. 한국의 페미니즘 활동사(여성인권운동사)

1) 1960년~1970년(높은 경제 성장 시기)

- (1) 여성노동자 : 이 시기의 여성노동자들은 주로 공장에서 적은 월급을 받고 긴 시간동안 노동을 하였다. 노동조합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 했던 여성노동자들은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life를 위해 투쟁fight 하였다. 또한, 30년 전, 한국에서는 여성이 결혼하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지만 여성운동은 결혼후에도 계속 회사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아이를 낳은 후 출산 휴가 갖기, 아이들을 돌보는 탁아소를 만들 것을 요구하며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활동을 했다.
- (2) 중산층여성, 여성단체 : 가족법 바꾸기 운동을 통해 여성을 차별하는 내용을 바로잡고 매춘관광prostitution tourism반대, 미스코리아대회 Anti Miss Korea Competirion 없애기를 통해 여성의 몸을 상품화commercialization하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하였다. 지속적인 미스코리아 반대운동은 2002년부터 TV방송에서 미스코리아를 뽑는 대회가 사라지게 만들었다.

2) 1980년대(민주화 시기)

- (1) 1983년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아내구타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한국여성의전화가 만들어졌고, 폭력피해자의 인권지원을 위한 상담원consultant 교육, 문화 활동을 통해 여성단체를 튼튼하게 하고 인식개선Improved awareness 활동을 진행하였다. 아내 구타를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기에 가정폭력 생존자를 돕겠다고 전화기 한 대를 놓고 시작한 상담은 현재 전국200여개의 상담소로 확대되었다.
- (2) 1985년, 여성은 25세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제도(여성조기정년제)를 없애기 위해 활동하였고, 안티 성폭력 간담회Anti-sexual violence Conferences를 열어 최초로 성폭력문제를 사회에 알렸다. 한 의류회사에서 여성노동자의 속옷을 벗긴 사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그 회사의 옷 가게 앞에서 불매운동Boycott을 하였다.
- (3)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sex torture 사건 : 경찰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대학생(여)을 성추행을 하며 성고문을 하였다. 이것은 여성의 수치심shame을 자극하고 민주화운동을 모욕insult하여 결국 민주화 운동을 약하게 만드려고 한 것이었다. 이 여학생은 경찰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3년간 재판을 하여 경찰을 처벌하였다. 재판을

하면서 성고문 사건이 언론에 드러났으며 전국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대책위 Countermeasures committee를 만들어 함께 싸웠다.

3) 1990년대(군인 출신 정부가 사라지고 민간인 출신 정부가 등장)

(1) 성폭력과 성문화에 대한 관심이 시작

: 일본군성노예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단체 단체가 만들어짐: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여성을 취업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납치하여 군인들의 성노예sex slave를 삼았던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수요 집회, 국제사회연대 등

: 김00 사건(1991) - 9세 때 이웃집아저씨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후유증aftereffect으로 힘들게 살다가 20여년 후, 성폭행 했던 아저씨를 찾아가 살해하였다. 성폭력 피해자는 살인죄를 재판하는 법원에서 마지막 이야기로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짐승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고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폭력피해자의 깊은 상처를 알리게 되었다.

이런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성폭력의 원인을 찾기 위한 활동과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만드는 활동이 시작되었다.

(2) 여성과 관계된 법을 만드는 일

: 성폭력특별법special act on sexual abuse (1994) -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강하게 하고 국가가 법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상담소, 피해자 쉼터 shelter 를 국가가 지원하기 시작했다.

: 가정폭력방지법 (1997) -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가정폭력을 휘두른 남편등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의하여 상담소와 쉼터가 만들어졌고 국가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못 하게 하는 법 (1999) -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에 따라 고용, 교육, 모든 시설의 이용 등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이 만들어졌다. '성희롱, 남녀차별'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남성과 여성을 평등하게 고용시켜야 한다는 법(1999) - 어떻게 하면 성희롱이 되는지 기준과 법을 만들어 직장에서 성희롱을 예방하고 회사 사장의 책임을 강화reinforce 하였다.

(3) 여성의 정치 세력화 women political power

: 사회의 여성폭력과 성차별을 없애는 것은 “국회의원이 어떤 법을 만들고 정치인이 어떤 정책policy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여성들이 법과 성평등한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후보candidate를 찾고, 리더십 교육 등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또, 여성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당제 Quota를 요구하였다. 할당제는 정당의 비례대표Proportional representation by party를 선출할 때 홀수 번호를 여성으로만 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 과 지역 의원의 선거에서 여성정치인이 늘어났다.

(4) 국제연대활동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와 ‘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 참석함으로써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는 북경대회 슬로건에 맞추어 사회의 각 분야에서 여성인권문제가 부각되었다.

(5) 여성문화운동 : 사랑과 성, 연애, 결혼, 가족 등에 있는 기존 성차별 현상을 비판하는 문화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림, 영화, 연극, 책, 미디어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표현하고, 미디어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문화를 비판하고 시청거부운동을 하였다.

4) 2000년대

(1) 젠더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 국가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국가정책에 성차별이 없는지 살펴보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았다.

(2) 여성이 정치에 많이 참여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 여성유권자 women voter 운동, 여성 공약 women commitment 주장 활동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여성정치세력화women political power를 위해 노력했다.

(3) 여성이 가난해지기 않게 하는 활동 : 성차별로 인해 소득이 작거나 가족,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 하는 힘없는 여성들은 가난하게 된다. 가난한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을 넓히는 것과 여성들이 일 하는 것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여성일자리 늘리기를 활동을 하였다.

(4) 가족법 안의 여성차별 제도였던 호주제owner of the house institution가 2005년 없어졌다(2005년) : 호주제도owner of the house institution는 남성만 가정의 주인이

될 수 있었고 남편이 없는 한부모 가정은 어린 아들이 집안의 주인이 되었던 한국의 대표적인 가부장patriarchy제도였다. 호주제도가 없어지면서 혈연중심 center of blood의 가족에서 다양한 평등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받아 들였다.

- (5)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법 제정(2004) : 한국은 성매매 금지국가로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성매매를 소개하거나 성을 사거나 파는 사람 모두를 벌하였다. 그러나 성매매를 여성들은 처벌을 두려워해서 이 범죄에 대해 고소하지 못하였다.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군산, 부산에서 성매매 화재 사건이 계속 발생하여 성매매 여성 2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화재 사건은 성매매 여성들이 당하고 있던 폭력, 감금, 계속되는 인신매매로 성매매 여성들 인권이 보호되지 않았음이 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여성단체들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사망 책임을 국가에 묻는 재판을 통해 정부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을 법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다. 성매매방지법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과 피해자를 돕는 법 두 개의 법(보통 성매매 방지법이라고 부름)이 만들어졌다.
- (6)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 찾기 운동 : 여성들의 가난과 성차별은 가까운 사이다. 여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필요하다. 성차별이 있는 사회에서는 돈을 모으거나 집을 사면 대부분 남자(남편)이름으로 등록하고 여성이 주로 하고 있는 집안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공짜 노동이라 생각한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여성의 아이들 키우고 부모를 돌보는 일, 식사준비, 청소 같은 집안에서 하는 돌봄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등록하자는 운동이 2000년부터 실시되었다.

5) 2010년대

- (1) 과거에는 여성들이 25세가 되거나, 결혼하면 직장을 그만 두는 관행이 있었다. 여성단체들은 이 관행을 없애고 여성들이 결혼하거나 임신했을 때,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계속 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결국 아이를 낳은 후에 3개월을 쉴 수 있는 출산 휴가, 엄마가 일 할 동안 아이를 돌봐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만드는 법이 만들어졌다. 그래도 차별의 문제는 없어지지 않아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월급을 40%정도 덜 받았고 대부분 비정규직part time job으로 일했다. 비정규직 일은 똑 같이 일하지만 정규직 regular job보다 작은 월급을 받았고 언제든지 해고 be cut at work 될 수 있었다. 2010년부터 임금이나 근무환경에서 차별disctimation받지 않는 좋은 여성일자리를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2) 장애인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사건의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활동 (2005년~2016년)

: 지방의 장애인 학교에서 교사가 어린 장애인학생을 수 년 동안 성폭행한 사실이 2005년 상담소를 통해 드러나면서 장애인성폭력과 장애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인권 문제가 드러났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도 못 하고 지능이 낮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이야기를 법정에 전달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싸웠다. 재판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한 소설가가 이 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쓰게 되었고, 이 소설은 2010년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되었다. 영화 상영은 순식간에 전국의 국민에게 이 성폭력 사건을 알렸다. 이 영화의 영향으로 장애인 가족이 아니어도 폭력을 신고할 수 있고 아동성폭력범을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3) 성폭력특별법을 고치기 (2013년)

: 2004년 성폭력특별법 special act on sexual abuse이 만들어졌지만 성폭력은 줄지 않았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피해에 비해 가해자의 처벌은 약했다. 아동을 성폭력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결국 2013년 가해자 형량을 무겁게 하고 가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얼굴과 주소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가해자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경찰이 감시 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것, 가해자에게 약물을 처방하여 성적 욕구를 없애는 화학적 조치chemical action,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것, 성폭력피해자를 여성에서 사람으로 규정하여 남성 피해자도 강간상대를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내용을 대폭 바꾸었다.

(4) 성매매여성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도록 법 바꾸기

: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수 많은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2004년 서둘러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강요나 협박으로 인한 성매매여성은 피해자로, 스스로 성매매 일을 하는 여성은 법을 어긴 자라 하여 처벌하였다. 성매매여성을 스스로 성매매 일을 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는 사람을 구분하여 처벌하는 것이

문제였다. 또,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증명을 여성이 스스로 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가난하거나 교육을 못 받았거나 지적장애가 있거나 가족 등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찰의 조사나 재판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말로 자신을 스스로 지키지 못 하였다.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성매매여성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 것을 요구하는 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5) 자신이 당한 성폭력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운동 Me Too! With You! (2017년~현재)

: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계속해서 언론에 알리는 현상이다.

곳곳에서, 수 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이 심각함을 알리고 피해자들끼리 위로하고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6년 미국에서 시작한 #MeToo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한국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MeToo 운동은 정치인, 연극, 영화를 하는 남성들의 숨겨져 있던 성폭력뿐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이 권력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여성들을 성폭력 해도 된다고 생각해 왔던 나쁜 범죄를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었다. 여성단체들은 #MeToo를 선언한 이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With You!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

2. 여성주의 활동의 성과(법)

여성조기정년제폐지, 성폭력특별법 제정(1994), 가정폭력방지법 제정(1998), 남녀차별금지및 구제에관한법제정(1999), 남녀고용평등법 개정(1999), 성매매방지법 제정(2004), 호주제 폐지 (2005)

여성인권운동의 방향 - 여성인권운동을 향한, 국가, 단체, 시민의 역할

사회를 구성하는 세 가지 조직 - 국가, 시장, 시민단체(NGO)

⇒ 여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1. 강간rape만이 성폭력이다.

직장에서 야한 농담, 공공장소에서의 추근거림, 성기를 꺼내 보이는 것, 음란전화, 음란한 영상을 보는 것, 몰래카메라 촬영, 가족내 아내구타, 인신매매, 성매매, 포르노(음란 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데이트폭력 등도 모두 성폭력이다.

2. 강간은 폭력이 아닌 조금 난폭한 성관계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피해자는 사건을 신고하지 못하고 사실을 숨기게 된다. 또, 내가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자신을 원망하거나 수치감, 절망감 등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강간은 단지 남성의 성이 공격무기가 되어 여성의 성을 침해한 폭력행위이다. 피해자는 폭력을 당한 것이며 스스로 예측 할 수 없었던 사고이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는 생각은 잘 못 된 것이며 이런 생각이 없어야 피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심리적 극복이 훨씬 쉬워진다.

3. 여성폭력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은 성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는 느끼지만 대부분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성폭력은 젊거나 늙거나,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많이 배우거나 배우지 못 했거나,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에라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성폭력은 힘이 강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자에게 폭력을 하기 때문에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4. 성폭력, 성매매는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적 충동 때문이다.

'남성의 성욕은 본능적이고 충동적이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담소 사례는 성폭력의 80% 정도가 우연히 저지른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는 성폭력의 시간과 장소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다. 가해자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성폭력을 하게 되는 동기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나 분노, 소외감을 나타내고 싶을 때,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거나 능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성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이 쉽게 이러한 수단이 되는 것은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과 남성의 성이 중심이 되는 성문화, 여성을 낮게 보는 생각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5. 여성들이 몸을 많이 드러내는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

여성들이 몸을 많이 드러내는 옷을 입으면 남성들이 성욕을 이기지 못 해 성폭력이 늘어난

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한 잘못된 믿음이다. 한국의 경우, 어린이 성폭력이 전체 성폭력사건의 30%가 넘으며 여름철에만 성폭행이 일어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때문이라며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6. 강간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로 강간피해는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같은 동네에 살거나 같이 직장에 다니거나 친척인 경우 등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전체의 80% 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역시 성폭력을 남성의 성충동에 의해 일어나는 갑작스런 범죄로 보는 인식 때문이다.

7.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범은 가난하거나 성격이 나쁘거나 정신이상자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며 오히려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의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deprivation, 분노 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약하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했을 뿐이다.

8. 끝까지 저항resistance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성폭력의 상황에서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서로 동의해서 한 성관계로 몰고 가거나 피해여성을 바람기가 있거나 헤픈 여성(이성과 쉽게 사귀는 여성/fickle) 으로 나쁘게 말한다. 그러나 강간범은 말로 위협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한다.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하기보다 무기력해지기 쉽다. 심리적인 위협만으로도 저항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9. 부부간에 강간이란 있을 수 없다.

아내구타에 관한 보고서들에 의하면 심한 구타 후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때 아내들은 가장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 아내에 대한 성적 학대(sexual harrasment)이자 강간 행위이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이 아니며 자신의 몸과 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는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10. 남편에게 매 맞는 아내는 여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사사건건(모든 일마다/at

everything) 이유 없이 폭력을 일삼는다. 설혹 상대방에게 결점(안좋은점/bad point)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옳지 않다.

11.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다.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 배기’라고 생각하거나, 집안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참견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몸을 다치게 하고 정신을 병들게 하는 범죄행위이다.

12. 성매매여성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

성매매의 구조는 성을 파는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보다는 온갖 명목의 비용과 벌금 등으로 인해 빚과 병든 몸만을 남기는 범죄의 현장이다. 성매매로 돈을 버는 사람은 성매매를 소개하고 연결해주는 사람들, 사채업자charterer, 건물주인, 주변가게의 주인들이다.

13. 성매매를 막으면 성폭력이 많이 발생한다.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공창제Public prostitution facility를 허용해야한다.

만일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면, 성매매를 합법화(벌을 받지 않도록 함/legalization) 시킨 국가에서 성매매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결과는 이와 반대이다. 한국의 경우,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2위인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따라서 성매매가 존재하는 한 돈·힘·협박 등을 통해 여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오히려 성매매를 규제(regulation)하는 나라에서 성폭력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

목



⇒ 페미니즘 상담을 위한 활동지

<자존감향상(self-esteem increase) 훈련 프로그램>

사회적 기준과 내 삶이 만날 때

개인 만족도와 차별 경험		성별	나이	학력	출신	외모	직업	거주지역	결혼여부	영어사용	가족구성	종교	경제력
내가 생각하는 나의 위치	+												
	보통												
	-												
	그 외												
내가 받은 사회적 대우													

자존감향상 훈련 프로그램

😊 장점 찾기

- ① 흰종이에 손바닥을 대고 손 모양을 그린다.
- ② 장점을 찾아 손가락 하나에 한 가지씩 적는다.
- ③ 장점 10가지를 못 찾는 참가자에게는 팀원이 찾아준다.
- ④ 장점 10가지가 넘는 경우 손바닥부분에 적는다.
- ⑤ 팀원끼리 장점 발표하기
- ⑥ 활동지를 벽에 붙인다.

※ 준비물 : 흰종이, 칼라펜

😊 공동체 훈련 (모둠 활동)

1. 왜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동체훈련이 필요할까요? 왜 공동체 내에서 함께 살아야할까요?
2. 팀원들의 활동 고민 말하기(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힘든 점들)

도움 팁 : 고민노트 작성하기

- 1) 팀원들의 고민 이야기하기
- 2) 가치카드 : 공동체가 가져야 할 가치 찾기
- 3) 고민 해결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욕구 이야기하기
- 3) 주민들과 만난 사례 이야기하기(긍정적 사례, 어려운 사례)
- 4) 해결을 위한 가치 찾기

도움 팁 : 가치노트 작성하기

- 1) 공동체 사건 해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가치가 무엇인지 가치 찾기
- 2) 교육 참가자의 각자의 가치 확인하기
- 3) 교육 참가자 합의하에 공동의 가치를 중요한 것부터 순서 정하기

<모둠진행방법>

- ① 모둠을 정한다.(팀원은 10명 이내)
- ② 팀별 진행자와 기록자를 정한다.
- ③ 고민노트를 작성한다.

- ④ 팀원끼리 자유롭게 이야기한다.
- ⑤ 기록자는 큰 종이에 팀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적는다.
- ⑥ 진행자가 발표한다.
- ⑦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큰종이를 벽에 붙인다.

※ 준비물 : 큰 종이, 매직, 테잎

😊 활동계획세우기 (모둠 활동)

1. 공동체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로 실천할 수 있는 활동계획 세우기
(공동체에서 하고 싶은 활동, 가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2. 팀원끼리 이야기하여 공유하기
3. 기록자는 큰 종이에 팀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적기
4. 진행자가 전체 발표하기
5.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큰 종이를 벽에 붙인다.

※ 준비물 : 큰 종이, 매직, 테잎

😊 나는 000을 실천하겠다. (개별 활동)

1. 나의 이웃으로 돌아가서 활동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여 개별 활동지에 적는다 (난 나의 이웃과 함께 0000을 할 것을 약속한다. 이 활동으로 나와 이웃이 0000 될 것을 기대한다.)
2.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한다. 참석자 전원이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 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준비물 : 종이, 네임 펜

😊 소감문 쓰기 (개별 활동)

1. 『룰루랄라 치치킹킹 프로젝트-여성주의 트라우마 힐링 활동가 교육』을 통해 느낀 점, 나의 각오, 소감 등을 적는다.
2. 자유롭게 발표한다. 시간이 적으면 몇 명만 발표한다.

※ 준비물 : 종이(참석자 수만큼, 네임 펜)

활동지 1. 집단 프로그램 규칙

모둠 활동 대화 시 지켜야 할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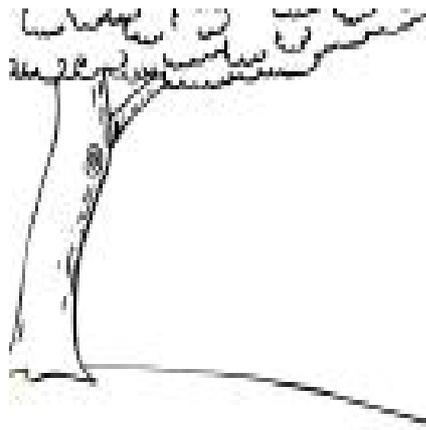
1. 집단 시간에 집중하며, 다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잘 들어 준다.
2. 집단 활동 중에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밀을 지킨다.
3. 원활한 집단 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모둠별로 토의 시에는 의논하여 정한 후 발표한다.
5. 모둠 대화 시에는 발언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공평하게 시간을 나눠서 말한다.
6. _____
7. _____
8. _____

20 . . .

이름 : (서명)

활동지 2. 권리장전

권리장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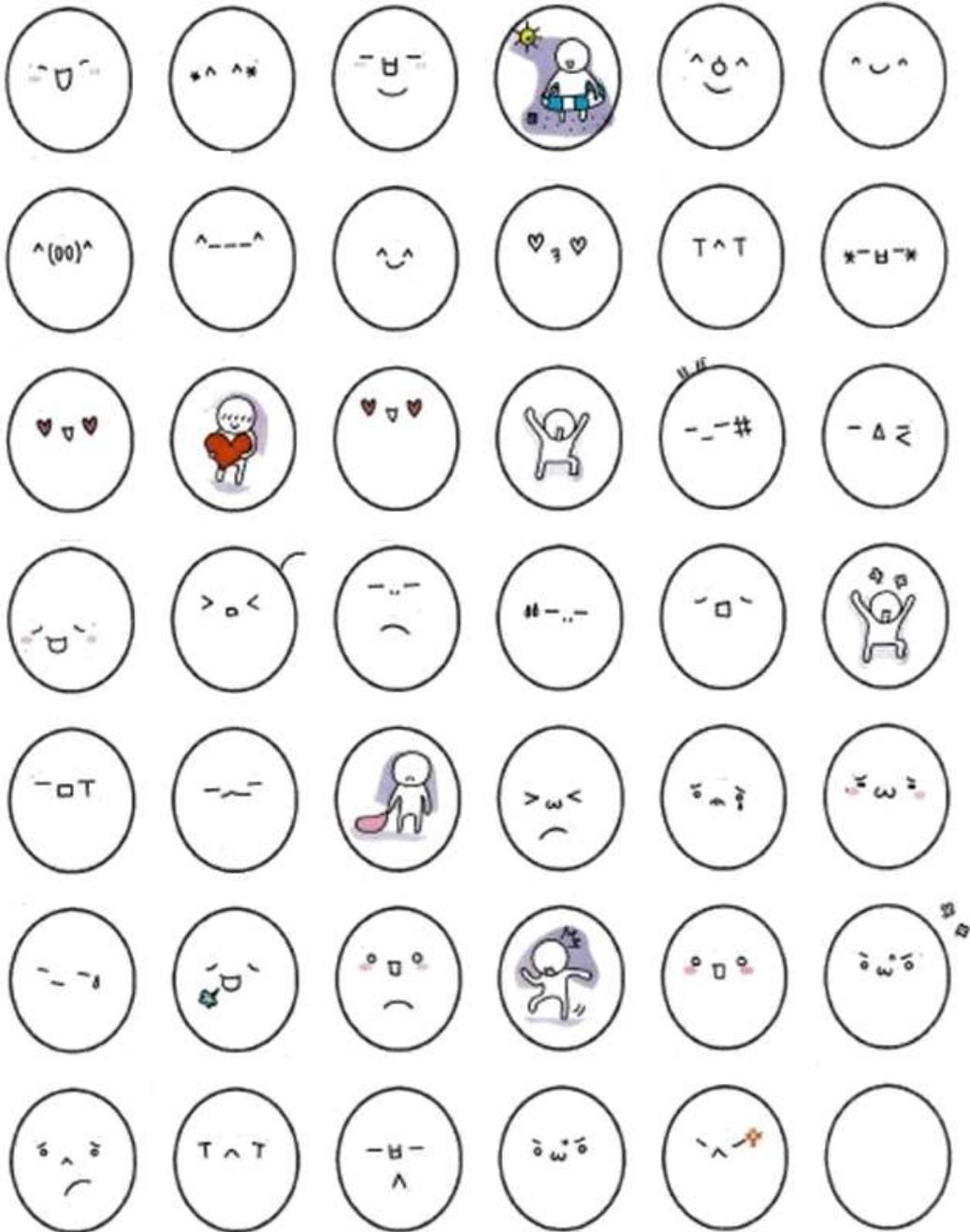
나는 나 자신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는 나 자신을 우선 순위로 둘 권리가 있다.
나는 안전한 권리가 있다.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완벽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하거나 심하게 다룬다면, 그를 저지하거나 화를 낼 권리가 있다.
나는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이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자신의 돈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나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권리가 있다.
나는 성장하고 변화할 권리가 있다.
나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나는 실수할 권리가 있다.
나는 타인의 문제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한 일상에 대하여 통제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Goodman & Fallon,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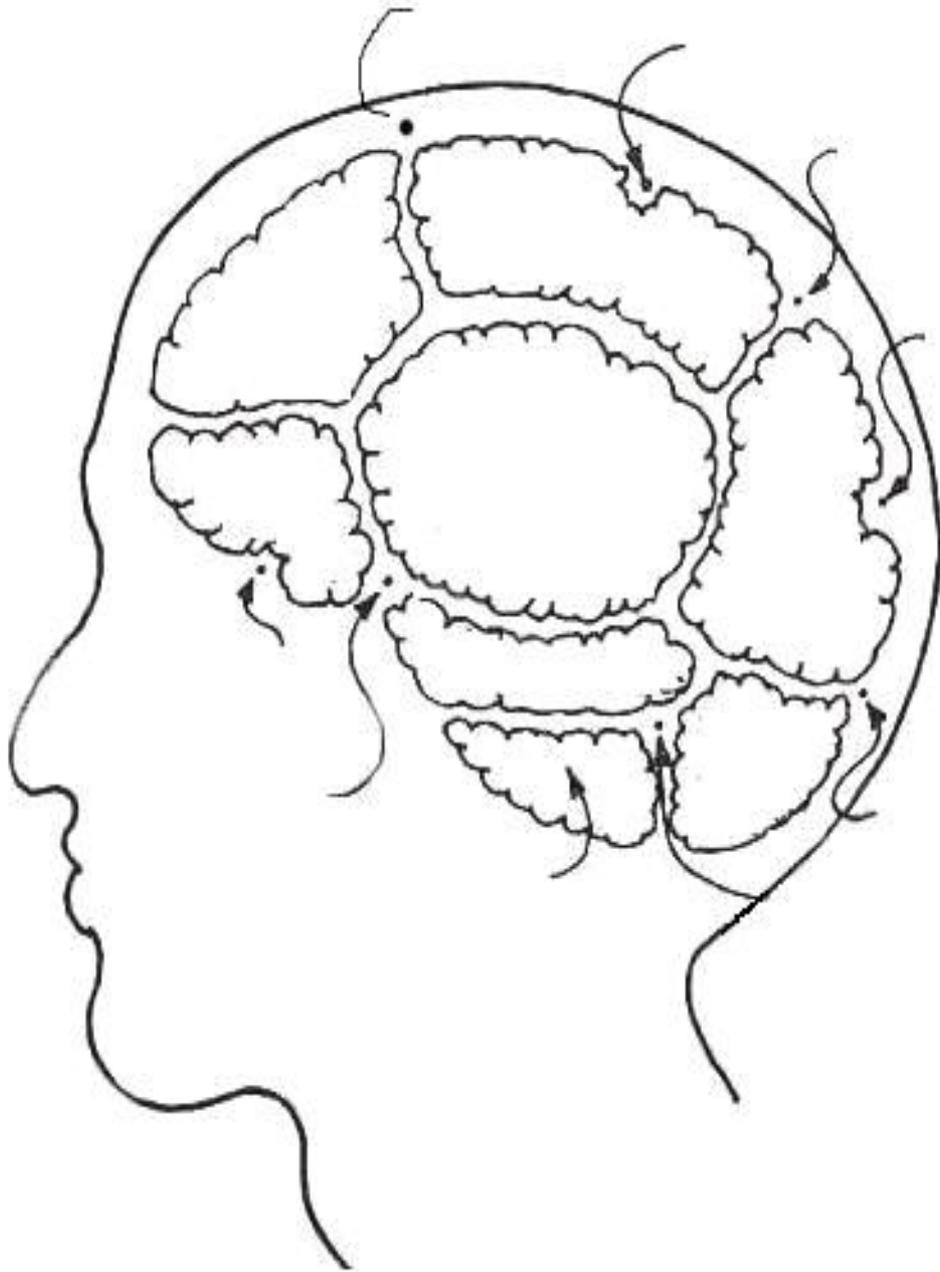
활동지 3. 느낌 카드

‘느낌 표’



활동지 4. 뇌구조도 그리기

뇌구조도에 자신이 집중하는 생각들을 적어서 자기소개 하기



활동지 5. 가치 카드

⇒ 공동체나 개인이 얻고 싶은 가치를 찾아 동그라미 치거나, 빠진 부분은 빈칸을 채워가는 형식으로 활용한다.

감사 (Thankfulness)	겸손 (Modesty)	사랑 (Love)	성실 (Sincerity)
공평 (Fairness)	관용 (Tolerance)	신중 (Prudence)	약속 (Promise)
마음나누기 공감 (Empathy)	믿음 (Trust)	양심 (Conscience)	예의 (Courtesy)
배려 (consideration, Care)	보람 (Achievement)	용기 (Courage)	유머 (Humor)
이해심 (Understanding)	인내 (Patience)	경청 (listening)	유연성 flexibility
자신감 (Self-confidence)	정직 (Honesty)	창의성 creativity	봉사 volunteer
존중 (Respect)	책임 (Responsibility)	진실함 true	안정 stability
친절 (Kindness)	행복 (Happiness)	초연 Premiere	근면 industry
인정 Recognition	소신 Consciousness	자율 autonomy	용서 Forgiveness
신뢰 trust	신용 credit	평온함 Serenity	자비심 benevolence
열정 Passion	정의 Justice	협동 collaboration	중용 Middle

활동지 6. 불안감 다루기

불안할 때 나타나는 증상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시도했던 방법	새로운 방법
빠른 호흡 땀 증가 창백한 피부색깔 동공확대 신체적 불안(가슴 두근거림, 복통, 짜증, 놀람 등)		-주의 돌리기 -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과 이야기 나누기 - 눈을 빠르게 깜빡이기 - 신체 자세 바꾸기 - 심호흡하기 - 마음속으로 안전한 장소로 가는 상상 사용하기 - 안전한 장소로 가기 - 주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 주변에 있는 물체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기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다른 사람이 시도했던 방법	- 안전한 물건을 잡고 있기 - 편안하게 해주는 테이프 듣기 - 손뼉 치기 - 바닥에 발자국 찍기
		- 찬물로 세수하기 -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하기 - 손을 지우개처럼 왔다 갔다 움직이기 - 플래시백 상자 활용하기(괴로운 이미지나 단어를 종이에 그려서 버리거나 태우거나 묻기)

⇒ 플래시백? 외상 사건의 장면, 영상, 소리, 냄새 등 연상으로 인한 자극으로 통증과 같은 신체기억, 극한 분노와 같은 감정, 행동 등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 활용방법 : 새로운 방법이나 다른 사람이 시도했던 방법 중 내가 할 수 있는 것 동그라미 치거나 적기

활동지 7. 장점 찾기



☞ 활용방법

- 손가락에 본인의 장점 적기
- 손가락에 장점을 다 채우지 못하면 집단원들이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적기. 장점이 많으면 손바닥에도 적는다.
- 소감 나누기

활동지 8. 장점 찾기 - 피자만들기

☞ 진행방법

1. 각 모둠에 피자판과 토핑 그림을 나눠준다.
2. 좋아하는 토핑과 싫어하는 토핑을 각각 하나씩 선택하게 한다.
3. 좋아하는 토핑 그림에는 장점을, 싫어하는 토핑 그림에는 단점을 쓰도록 한다. 장점은 되도록 많이 쓰도록 한다.
4. 장점과 단점 토핑 그림을 피자판 그림 위에 붙여 피자를 만든다.

☞ '장점 스피드 게임'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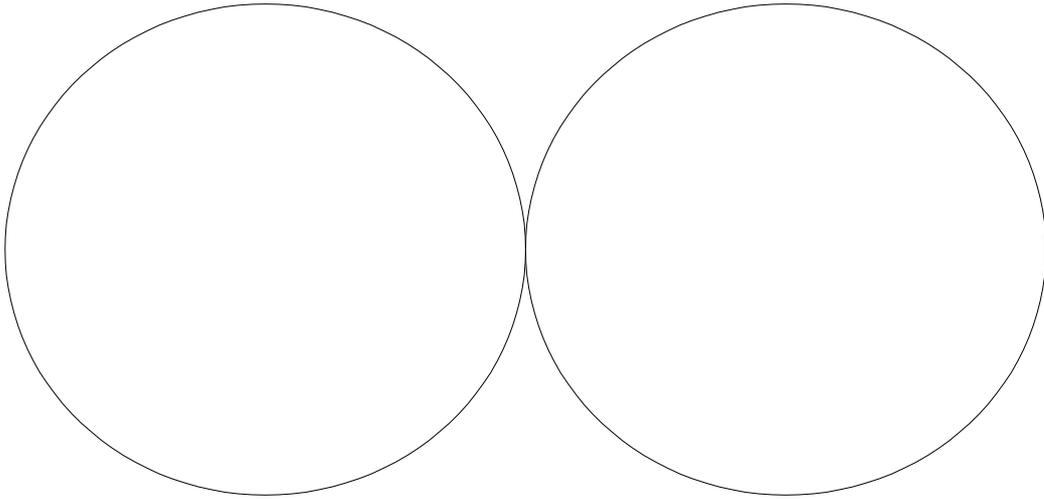
방금 만든 pizza는 아직 완성된 pizza가 아닙니다. pizza를 완성하기 위해 스피드 게임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장점보다 단점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이 무엇인지 모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난 너무 수다스러워'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명랑해서 부러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답니다."

단점을 장점으로 최대한 빨리 고쳐 말하는 '장점 스피드 게임'을 한다.

진행자가 '겁이 많아'라고 말하면 재빨리 '신중해'처럼 장점으로 고쳐 말하면 됩니다. 가장 빨리 말하는 모둠이 이기는 거예요.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단 점	장 점
설치는, 나서기 좋아하는	적극적인, 의욕적인, 활동적인, 주도적인
말이 많은, 수다스러운	말 잘하는, 발표력 있는
이랬다저랬다 하는, 쫓대가 없는	협조적인, 남을 돕는, 수용적인
수동적인, 복종적인, 의존적인	규칙을 잘 지키는, 협조적인
자기중심적인, 독선적인, 고집불통인	소신있는, 자립심이 강한, 주관이 분명한
냉정한, 따지는 타산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객관적인
외모에 신경 쓰는	깔끔한, 패션 감각이 있는
공격적인, 경쟁적인	진취적인, 의욕적인
잘난 체하는	자신있는, 리더십이 있는
욕심 많은	꿈이 많은, 패기있는
변덕이 심한, 신경질적인	감정이 풍부한, 민감한
우유부단한	신중한, 조심스러운
말수가 적은	침착한, 차분한
자신감 없는	겸손한

활동지 9.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건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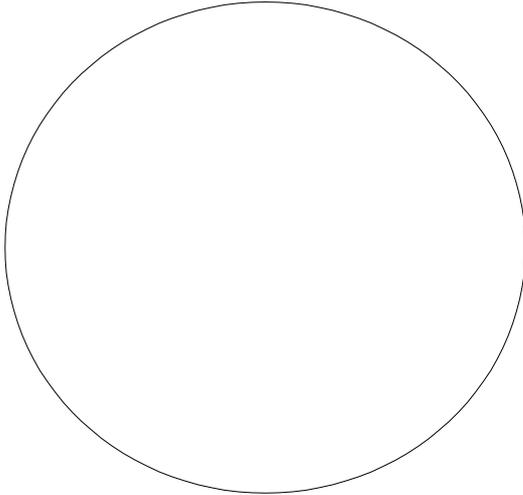


☞ 진행방법

- 두 사람씩 짝을 짓고 마주보고 서로 이야기를 한다. (작성한 이유)
- 이야기가 모두 끝나는 대로 짝에게 말한 내 이야기와 짝이 내 이야기를 전할 때 얻은 여러 가지 느낌을 간추려서 말한다.

활동지 10.

⇒ 좋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가져야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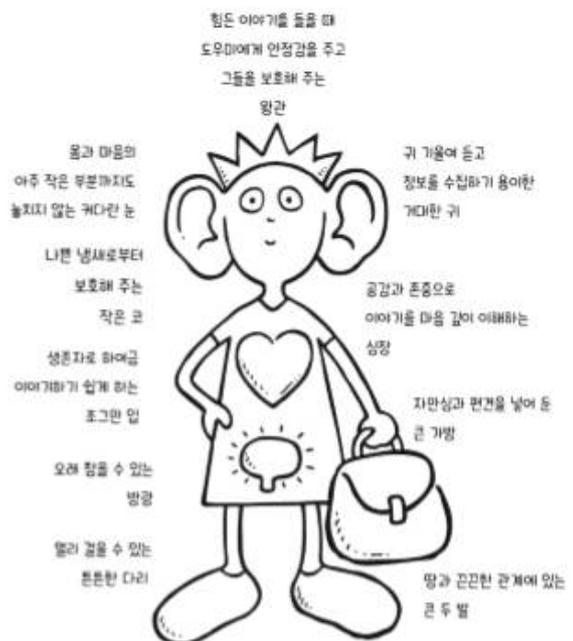


⇒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는가?

⇒ 슬픔, 수치, 분노, 불안 혹은 무감각 등의 감정에 저항하지 못하는 생존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 때때로 생존자를 돕는 일이 어려운가? 그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 좋은 조력자란?



활동지 11. 내 인생의 사과나무

☞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찾아보기

1. 내 고민을 들어주는 사람
2.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는 사람
3.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4. 나를 위해 맛있는 밥과 청소를 해주는 사람
5. 제일 많이 찾아와 주는 사람
6. 내 기분을 잘 알아주는 사람
7. 나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8. 쉬는 시간에 같이 노는 사람
9. 나와 함께 웃고 떠드는 사람
10. 내가 무엇을 하든 믿어주는 사람

☞ 진행방법

1. 모둠별로 큰 도화지(4절지)를 나눠준다.
2. 커다란 사과나무를 그린다.
3. 사과 그림에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 주는 사람 1명을 정해서 그 사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다.
4. 작성한 사과를 사과나무에 붙여 사과나무를 완성한다.

활동지 12. 폭력 다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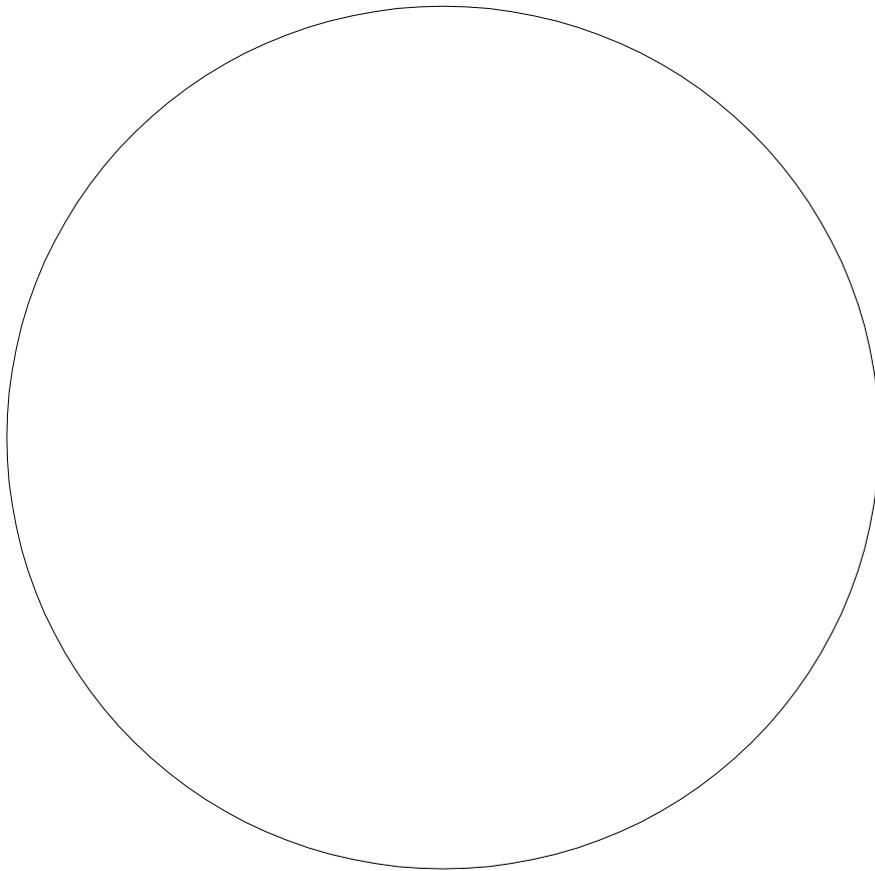


⇒ 그림을 보고 느낀 점

활동지 13. 도움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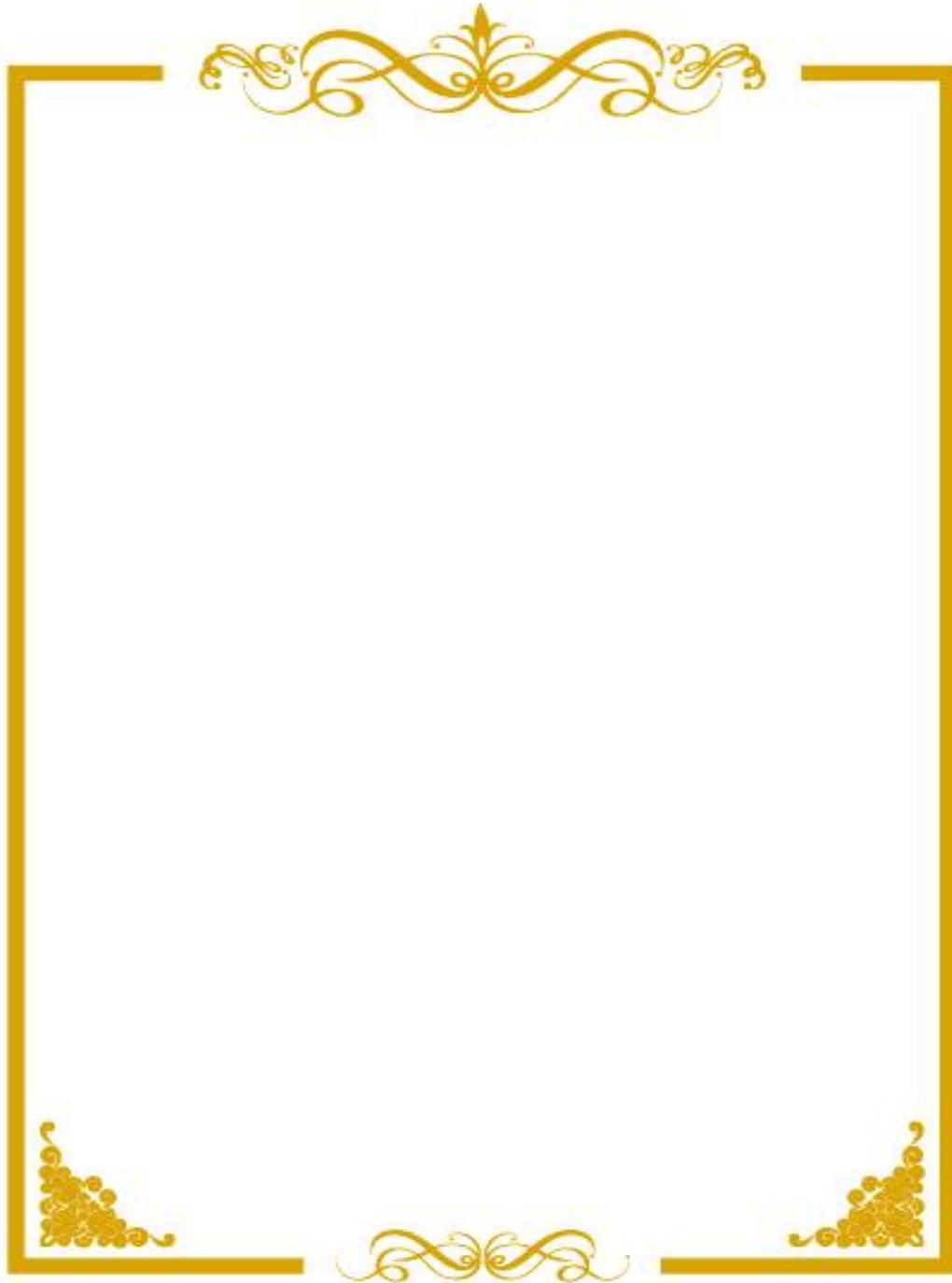
도움파이

내가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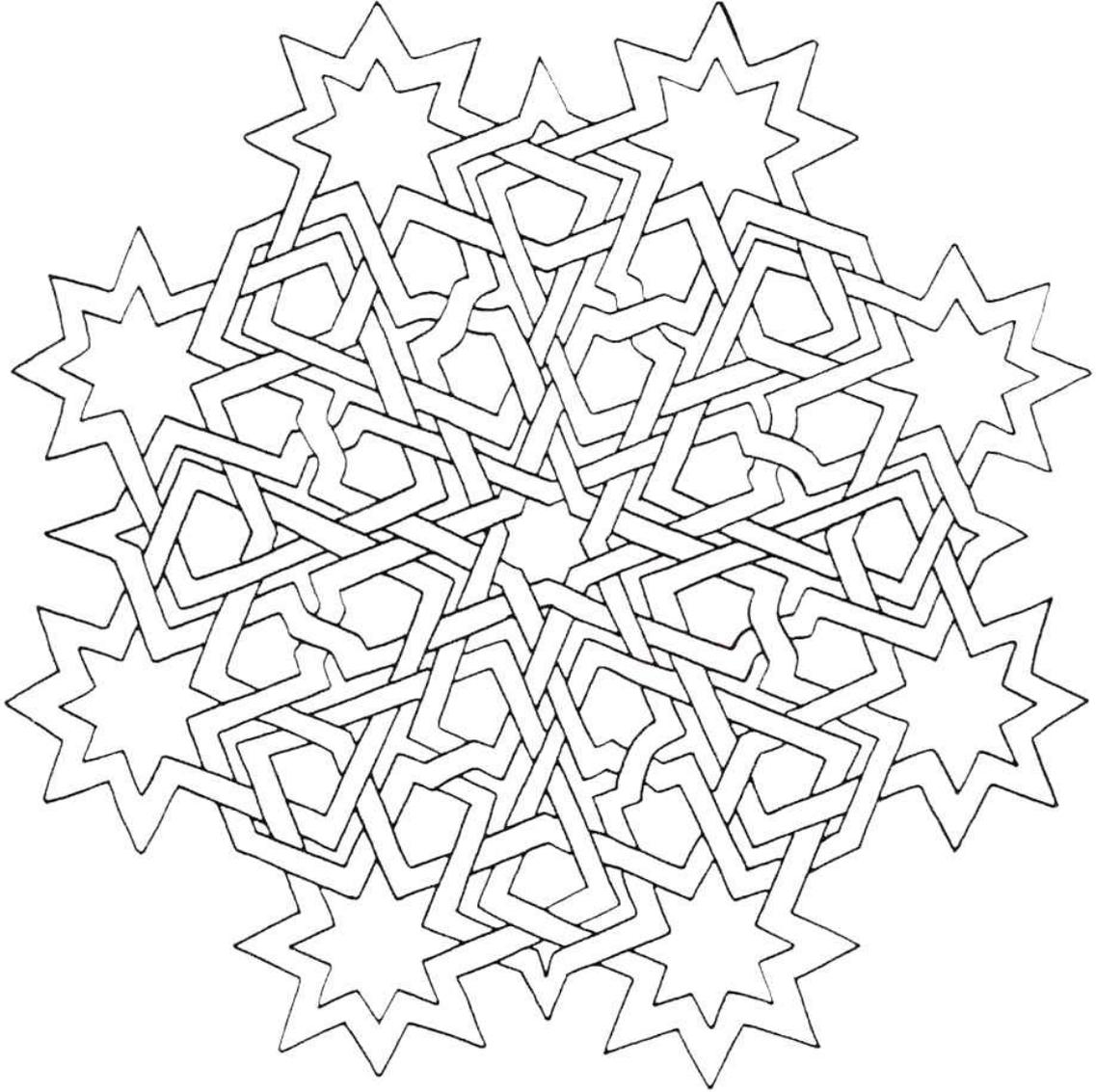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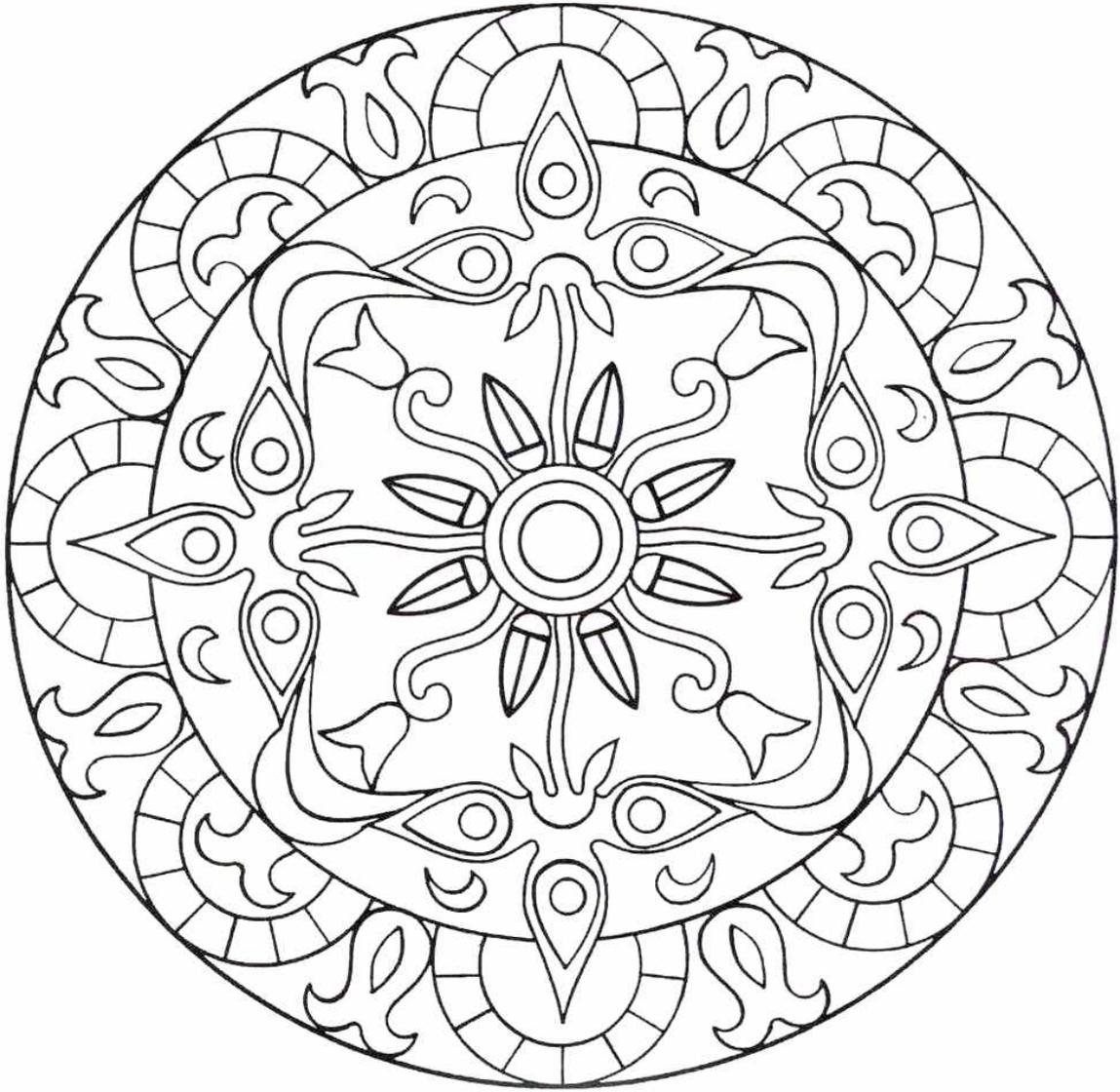
* 속상하고 힘이 들 때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용감하고 지혜로운 일이다.

활동지 14. 나에게 주는 상장



활동지 15. 만다라





활동지 16. 공동체 활동놀이

꼬인 손 풀기

애칭 _____ 이름 _____

⇒ 단계 1 : 집단원들이 원을 만들고 옆 사람의 손을 잡는다.

집단원들의 협동성을 확인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의 손을 잡아 보세요.”

“손을 다 잡았으면 각자 자기 옆에 앉아 있는 친구가 누구인지 기억하도록 하세요.”

⇒ 단계 2 : 같은 집단원 안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도록 한다.

“이제 서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옆에 있었던 사람 옆으로 가면 안됩니다. 마음대로 자리를 바꾸어 보세요.”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진행자의 임의대로 한다.)

⇒ 단계 3 :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처음에 양옆에 있던 사람의 손을 잡도록 한다.

“이제 자리를 바꾼 상태에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지금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처음 양옆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이 되었으면 하나, 둘, 셋! 하는 소리에 맞춰서 그 사람의 손을 잡도록 하세요.”

(준비되면 ‘하나, 둘, 셋!’을 외친다.)

⇒ 단계 4 : 집단원 전체가 꼬인 손을 풀도록 한다.

왼팔이 위로 오도록 엮어 양 옆 사람의 손을 잡아 둘레를 짚는다.

“지금 서로 손들이 엉킨 상태가 되었죠? 그럼 이제부터 꼬인 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잡고 있는 손을 떼지 않고 몸을 움직여서 꼬인 손을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세요. 절대로 손을 떼지 말고 풀어서 하나의 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 단계 5 : 정리하기

“처음에는 엉망으로 엉켜 있던 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과 협동으로 이렇게 큰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같이 협동하고 노력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의 활동 기록

<2017년 10월 ~ 2018년 7월까지>

2017. 10. 14. ~ 2018. 2.

- 첫 미팅을 가지다 (디모나, 스테피, 윤희주, 이희영, 황정아, 한주연)
- 미얀마 IDP 난민 여성 및 미얀마 사회 이해를 위한 사전 학습을 지속적으로 가지다 (민족분쟁 역사, 정치경제 구조, 난민 여성들의 실태 등)

2017. 10. ~ 2018. 3.

- 난민 지원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으다 (트라우마 치유 역량 강화 교육 전문가, 여성운동 상담 전문가, Fundraising 지원 인력 등)

2017. 11. 29.

- 집담회 ‘미얀마 난민촌 여성들의 삶과 희망 찾기’를 개최하다 (장소: 삶디 청소년센터)
발표: 미얀마 소수민족 분쟁 발생의 역사 (윤희주)
미얀마 IDP난민 여성들의 고단한 삶 (Naw Demona Khoo)
광주에서 IDP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황정아)

2017. 12. 8.

- 현지 협력단체인 미얀마의 GDI에 방문하여 미팅을 가지다
: Lahpai Ja La(Executive Manger), Pan Seng Ja(Finance Manger)와 인터뷰 하다

2018. 1. 10.

- GDI와 화상 회의를 진행하고 활동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다
: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활동가, 난민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조사 시기는 1월~3월까지로 하며, 업무 분담을 협의하다 (GDI: 설문 지역 및 대상 선정 /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설문 문항 구성 및 영어 번역)

2018. 2. 19. ~ 26.

- 아시아 여성 활동가들 광주지역 여성단체 및 여성학자들을 방문하다
: 방문 참여 활동가 (미얀마, 부르키나파소, 인도네시아 활동가 3인)
광주 여성의 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영화제,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여성학자 3인이 이에 응하다

2018. 3. 8.

- 남도일보 자원봉사 공모사업에 공모 제출, 최종 선정되어 일부 사업 예산 마련하다

2018. 3. 21.

-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 여성의 전화와 공동으로 글로벌 젠더 이슈 토크 ‘국가폭력과 여성의 몸’을 개최하다
- 설문조사를 완료하다 (참여자: 까친, 카렌, 라카인, 산, 친 지역 활동가 56명)

2018. 3. 29.

-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과 첫 오프라인 미팅을 가지다 (장소: 광주 YMCA)
- : IDP 난민 여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다
- 여성주의 상담 / 평화 교육 / 보건 의료 세 파트로 교재 개발 및 교육팀을 구성하다

2018. 4. 2.

- GDI와 화상회의를 개최하다
- : 분쟁지 지역 특성 및 설문조사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다

2018. 4. 5.~ 9.

- 여성주의 상담팀, 평화교육 팀이 GDI 활동가 Demona와 미팅을 가지다
- : 난민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교류하다

2018. 4. 13. / 4. 27.

- 프로젝트 참여자 및 광주시민들의 미얀마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워크숍을 진행하다
- : 4월 13일, 공선주(Asia Dignity Institute), 미얀마 메이크틸라 Madaw 프로젝트 운영기
- 4월 27일, 전미선, 까친 지역 IDP캠프 방문기 및 미얀마의 문화 이해

2018. 4. 24. / 5. 18.

-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2개 민간 기관에 공모 프로젝트 제출했으나, 모두 탈락하다

2018. 5. 18.

- GDI와 화상회의를 개최하다
- : 2018년 8월 20일 ~ 8월 23일(4일간) 교육을 진행하고, 4개 지역 활동가 32명이 참여하기로 합의하다

2018. 5. 10 / 7. 30

- 교육 팀별 교재 작업 점검 미팅을 진행하다

2018. 6. 15 ~ 7. 30.

- 예산 확보를 위한 미얀마 GOODS와 함께 하는 후원 모집을 시작하다

롤루랄라 치치킹킹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사람들

<여성건강 교육 팀>

최형금(산부인과 전문의) | 범은경(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김고운(간호사,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박사과정)

<평화교육 및 여성주의 집단 상담 팀>

문기전 (광주YMCA) | 채숙희 (광주여성의전화) | 최미랑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차경희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 서영옥 (비폭력평화교육센터) | 손경화 (비폭력평화교육센터)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

황정아 | 한주연 | 김경자 | 이희영 | 윤희주 | 장은진 | 장영은

<Gender Development Institute>

Lahpai Ja La (Executive Manager) | Pan Seng Ja (Finance Manager) | Naw Demona Khoo (Program Director)
교재번역: Nweni Hlaing
통역: Thae Thae Zaw | Wai Hnin Phyu | Hitke Htike Aung | Htet Htet Hlaing | Thida Hlaing

<후원기관>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전) 평화행동 지금 | 국제이주문화연구소
지역미래연구원 | 광주환경공단 | 대한사회복지회광주지부

<후원회원> 가나다순

강선양, 고영임, 고은아, 권현희, 김경자, 김달아, 김선례, 김영옥, 김지원, 김창수, 김해화, 노채영, 레티난홍, 문기전, 박경린, 박상열, 박혜자, 범은경, 샤홀로, 서영옥, 심미광, 안나리사, 안성례, 염미봉, 오영이, 유수애, 이소아, 임수정, 정현애, 차경희, 채숙희, 최미랑, 최형금, 한영, 한주연, 황경선, 황인숙, 황정아